

碩士學位論文

자본주의 발전과 가부장제적 가족의 해체

- 저출산 현상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社會學科

夫 承 姬

2006年 2月

자본주의 발전과 가부장제적 가족의 해체
- 저출산 현상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진영

부승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부승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5년 12월

< 목 차 >

제1장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방법	8
제2장 이론적 고찰	10
1.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10
1) 가부장제의 출현	10
2)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모순적 접합	13
3)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15
2. 페미니즘의 가족해체론	19
1) 다양화론 - 선택적 해체론	20
2) 가족위기론 -강제적 해체론	22
3) 한국 상황에서의 적용가능성	25
제3장 한국사회에서의 가부장제적 가족의 해체	29
1.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과 가부장제적 가족의 위기	29
1) 자본주의 성립기	30
2) 경제성장기와 여성노동시장 형성기	32
3) 1990년대 이후 자본의 세계화 시대	35
2. 가부장제적 가족 해체의 구조적 양상	38
1) 대잇기의 종언	38
2) 부계혈통주의의 혼란	41

3) 저출산	44
4) 남성부양 가족의 허구성	46
제4장 저출산의 강제적 구조화와 출산기피	49
1. 저출산의 실태	49
2. 저출산 원인	51
1) 현상적 원인-혼인율, 초혼연령, 미혼율	52
2) 구조적 원인	56
3) 강요된 선택 - 출산기피	64
3. 저출산의 유형: 몇 가지 사례	67
1) 비출산	68
2) 미출산	70
제5장 요약 및 결론	74
참고 문헌	78



< 표 차례 >

표 1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39
표 2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	40
표 3	부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40
표 4	가구의 소규모화	41
표 5	이혼율과 재혼율	42
표 6	가족에 대한 느낌	43
표 7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의견	46
표 8	결혼에 대한 태도	48
표 9	조출생율과 합계출생률	50
표 10	유배우 부인당 평균출생아수	50
표 11	출생아 규모 변동추이	51
표 12	초혼연령과 조혼인율	52
표 13	성별연령별 인구비율	53
표 14	합계출산율 퍼센트 변화의 구성요소	55
표 15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59
표 16	여성취업 장애 요인에 관한 견해	61
표 17	자녀관	66

< 그림 차례 >

그림 1	연령별 출산율	54
그림 2	청년층 실업률	58
그림 3	혼인별 경제활동 참가율	59
그림 4	연령별 보육대상 아동존재별 여성경제활동감가율 변화	62
그림 5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63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the Breakdown of the Patriarchal Family

- focus on the low fertility

This paper assumes that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brought about the crisis of the patriarchal family and approaches to this point with the focus on the low fertility.

Although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South Korea with the mode of production of capitalism has depended on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it brought the system to a crisis. Marxist feminism thought females in the modern society were suppressed by the patriarchal system and capitalism simultaneously and expressed this as patriarchal capitalism. Non-capitalist environment is essential for the accumulation of capitals, and the analysis about the world system theory shows that the root of capital accumulation has been the exploitation of women, colony, and nature. As a system, patriarchal capitalism works worldwide based on the exploitation.

Causes of low fertility such as low marriage rate, an increase in mean age at the first marriageshow that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capital lead to an unstable labor market, resulting in more difficult conditions for the patriarchal families.

The reason why low fertility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as a sign of thebreakdown of a family is that low fertility caused by the postponement and avoidance of marriage among young people is kind of a problem to

refuse to make a family itself. This shows that women have no other options than low fertility in a situation where both men and women have to work due to the revealed false of male breadwinner family (MBWF) but, even with this social change, the problem of fertility is still regarded as a women's own problem.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women's option of low fertility is naturally appeared as a sign of social change in the breakdown of patriarchal family due to the change in capitalism, that is, patriarchal order in family and labor market is forcing women to opt for low fertility and those women who are asking for the change in patriarchal family and the reorganization of gender order are choosing the low fertility.

Key word : Patriarchal Capitalism, Breakdown of Family, Low Fertility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가족은 누구나 정체성의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는 일은 흔치 않다.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시되어 문제화하지 않게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문제시되더라도 가족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족이 사회적 구성물임을 전제한다면,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단위로만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으며, 가족의 모든 측면이 다른 사회제도나 체계와의 연관 하에서 연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족의 개념과 형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가족의 특징을 꼽으라면 단연 혈연중심의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은 개인으로 하여금 가족에 의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억압적이기도 하다. 이 가족 내 억압의 실체는 개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로 규정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유교주의에서 비롯되어, 산업화이후 자본주의와 결합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로 나타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가족해체현상이다. 이혼율의 증가와 평균 혼인연령의 상승 그리고 출산율의 저하 등이 가족해체현상의 징후로 지적되고 있다. 이 중에서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해체의 직접적 징후로 포착될 수 있으며, 혼인연령의 상승과 출산율의 저하는 가족해체의 간접적 징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해체의 직접적 원인 혹은 징후로 포착되는 이혼율 증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상 혼인연

령의 상승과 출산율의 저하이다. 왜냐하면, 이혼율의 증가는 혼인관계 내에서 즉 구성된 가족관계 내에서의 문제이지만, 혼인연령 상승과 출산율의 저하는 재생산 기능으로서의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그 자체를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혼과 출산의 기피는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무자녀 가족’이나 ‘독신가족’ 그리고 ‘동거가족’ 등 전형적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족형태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해체의 징후들은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를 단순히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인 사회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한국사회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변동의 한 양상으로 볼 수는 없는가?

역사적으로 가족은 사회변동에 따라 재구성되어왔으며 해체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혼의 증가, 혼인이나 출산의 기피로 인한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해체의 징후들은 ‘가부장적 가족’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가부장적 가족’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개인주의의 심화로만 인식되거나 또는 좀 더 여성의 문제로 임혀짐으로써 이기적인 여성의 문제로 개인화되고 있다. 또한 ‘가족의 해체’로 위기화하고 사회병리화하면서 가족주의의 회복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반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편, 세계적 자본의 구조는 더 이상 가부장적 가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이 최근의 논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적 자본의 논리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으며 가족의 해체는 그러한 변동의 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해체를 위기화하면서 가족주의의 회복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것은 여전히 가족을 자본의 위기에 대한 안전망으로 삼고자하는 자본의 논리이다.

본고는 저출산이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가족구성의 변화와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논문들은 저출산을 가족해체의 한 요인으로 보면서도 이혼을 좀 더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징후로 다룸으로써 출

산기피가 재생산 기능으로서의 가족구성자체를 거부한다는 인식은 부족하다. 또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세심한 분석 없이 다만 낮은 출산율을 문제의 대상으로 삼고 출산율 자체를 높이기 위한 정책은 출산을 회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화되어 여성이 자신의 삶의 유형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여성학적 관점의 연구들은 저출산의 부정적 효과 보다는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변동과 관련한 여성 억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완화시키고 여성의 다양한 선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더 나아가 저출산을 강요하는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여성이 일방적으로 통제당하는 수동적 희생자로서만 규정될 수 없다고 인식하면서 최근의 여성들의 출산기피는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속에서 여성해방적 자기결정이며 선택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가족이 사회적 구성물로서 사회변화와 더불어 변화하는 실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가족의 경험을 특히 성에 근거하여 차별화시켜보고자 하는 것이다. 왜 여성들이 저출산을 하게 되는가를 통해서 가족은 이해관계가 동일한 집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족 밖의 경제조직이나 국가 또는 기타 사회제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은 좀 더 여성 억압적 기제이며, 그 억압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비롯되었고 자본주의 구조에 의해서 강화되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하여 현재의 사회경제적 구조들은 가부장적 가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저출산 현상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가부장적 가족의 해체를 '위기'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인정하고 수용해야하는 '변화'임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가족을 가족 사회학적 이론과 방법을 적용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한남제, 1984; 이동원·함인희, 1996)라고 볼 수 있으며,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가족경험을 토대로 가족제도의 억압적 측면을 “폭로”하는 연구시각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이동원·함인희, 1996).

페미니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가족생활을 화합이나 적응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문제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이 가족 밖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의해서 구조화되고 가족 내에서 재생산되는 방식과 또한 가족 내의 문제가 가족 밖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박민자, 1993).

페미니즘이론은 1980년대 그간에 지배적이었던 구조기능주의의 가족개념을 비판한다. 비판의 초점은 구조기능주의론적 가족개념은 가족을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The family)으로 보면서 특히 성별분업의 생물학적 해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으로, 또한 그러한 가족은 이해가 동일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페미니즘은 가족 개념의 단일성 내지 전형성을 비판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성의 본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가족은 상이한 활동을 하고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장소라고 본다.

1990년대 중반에는 페미니즘보다 가족의 개념에 대해 더욱 해체적인 입장에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페미니즘이 가족의 다양성을 언급하지만 오히려 여성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본질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것은 결국 가족의 개념을 본질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인종, 계층/계급의 입장과 함께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의 동일성을 부인하고 여성 내의 차이에 주목한 가족 개념을 구성한다. 또한 가족을 사람들이 가진 하나의 사고방식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며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문소정, 2003).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가족사회학계에서도 가족은 위기인가 또는 가족은 해체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되고 있는데,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최근의 한국가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포스트모던 사회,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전망을 갖고서 ‘다양화’ 라고 해석하고, 한국가족의 다양화를 ‘위기’라기 보다는 ‘재구조화’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취한다.

반면 이러한 다양화를 핵가족위기론으로 보는 상반된 해석도 있다. 그것은 한국의 지난 30여 년간의 가구구조 변화를 핵가족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단위로서의 해체, 해체를 가져온 세계 경제적 맥락에서 핵가족 내지 가족의 위기로 해석하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다(문소정, 2003).

이미경은 가족의 위기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을 논하면서 2세대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가족의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안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2세대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인 자유주의는 가족의 위기를 개념화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며, 포스트페미니즘은 주변성과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공명하고 오히려 해체적 경향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이미경, 1999).

따라서 근대적 가족형태의 딜레마들이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의 일반적 위기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진행중인 가족의 위기가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총체적 위기의 일부이며, 따라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 전체를 재조직해야만 그리고 사회경제적 삶의 다른 측면이 재조직될 때만이 가족의 변화로 볼 수 있다고 한다(권현경, 2002).

가족해체의 문제는 60년대부터 이미 산업화로 인한 전통가족의 붕괴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80년대 이후 특히 이혼을 중심으로 사회변동과의 관련들 속에서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들어서 경제위기라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의 형태의 출현과 그 문제점

들을 중심으로 가족해체의 문제는 가족의 '위기' 인가 '재구조화'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출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의학적 그리고 보건학적 차원에서 많이 다루어져왔다.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여성주의학자들에 의해 여성신체의 보편적인 기능으로 간주하는 재생산능력이 출산으로 실현되는 과정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들이 개입되는 정치적인 장임이 설명되어왔다(김은실, 1996). 한국사회에서 출산이나 여성의 몸을 국가나 의료 그리고 가부장제와 같은 문화적 권력과 연계시키는 연구는 최근에야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원정원, 2004).

본고는 최근의 가족해체의 문제가 이혼을 중심으로 대부분 논의되고 있음에 반하여 저출산을 가족해체의 중요한 단서로 보면서 그러한 원인들을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거나 정상가족으로의 회복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최근의 저출산이나 가족해체에 대한 논의들은 저출산이나 가족의 변화를 병리화하는 전제를 두고있음을 지적하면서, 저출산이나 가족해체의 현상들을 사회구조적 강요 속에서 여성들의 능동적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가족해체의 문제와 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뜨겁게 쟁점화되었던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석박사학위 논문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996년 이후 2004년까지 사회과학분야의 석박사 학위논문 중에서 가족에 대한 석박사 학위 논문은 총141편이며, 해방이후부터 2000년 이전까지 출산 관련 논문(석박사 학위논문)은 1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저출산에 관련된 논문은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 들어 출산통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문들이 등장하면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분석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가족에 대한 연구들 중 가족의 위기와 관련된 논의들은 경제위기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박종현, 1999; 원충연, 2001; 이지영, 2002; 신명일, 2004)에 관한 연구들과 비정규직 기혼 여성의 취업에 대한 연구(김희숙, 2002), 맞벌이가족 주부취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역할갈등(김양호, 1997; 이수정, 1997; 김정철, 2001)에 대한 연구, 이혼율증가에 관한연구(이주홍, 2002), 재혼가족의 갈등과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김효신, 2004), 그리고 대안가족의 모색(박은주, 2003)등을 들 수 있다.¹⁾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출산 및 저출산에 관한 석박사 학위논문들은 모두 67건에 달한다. 이중 과거의 출산조절정책에 관한 비판은 2000년 손현숙의 “일제식민지시기 조선의 출산통제 담론의 연구”와 손애리의 “1960-70년대 한국의 출산통제정책 연구: 근대적 규율권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2004년 배은경의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등 3편에 불과하다.

또한 저출산 실태에 대한 여성학적 분석은 2005년 신은숙의 “제도적 모성에 대한 갈등과 협상으로서의 저출산”이 유일한데, 신은숙은 기혼의 20, 3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저출산을 ‘제도적 모성’에 대한 순응과 갈등을 거치면서 여성들이 협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외의 논문들은 모두 저출산을 사회문제화하고, 다각적인 원인분석 및 저출산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1) 한국 사회 중산층 가족의 가장실직에 따른 적응과 갈등(박종현, 1999), 지역경제의 위기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원충연, 2001), 한국의 남성생계부양자 가족의 위기에 관한 연구(이지영, 2002), 경제위기하에서 가족의 대처전략과 부부관계의 변화(신명일, 2004), 비정규직 기혼 여성의 현재 취업에 대한 조사연구(김희숙, 2002),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김양호, 1997),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이수정, 1997), 맞벌이가족 주부취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의식(김정철, 2001),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이주홍, 2002), 재혼가족내 모의 갈등과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김효신, 2004),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동거 양상과 대안적 가족 개념의 모색(박은주, 2003).

3.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제기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먼저, 가부장제적 가족해체의 구조적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통계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출생순위별 성비, 유배우부인당 현존자녀수 분포, 부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구의 소규모화를 통해 대잇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제시할 것이고, 이혼율과 재혼율, 가족에 대한 느낌을 통해 부계혈통주의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저출산과 연결되는데, 저출산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출생률과 합계출생률, 초혼연령과 조혼인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의견이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은 남성생계부양자가구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현상만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현상이기도 한 것으로 남성의 평생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에 대한 의미가 변하고 있음을 결혼관을 통해 확인해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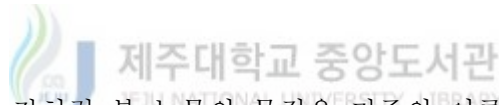
둘째, 가부장제적 가족해체의 구조적 양상을 저출산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저출산의 실태 및 저출산의 원인을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저출산의 실태를 살펴봄에 있어서 기혼여성의 출산력 실태는 유배우부인당 평균출생아수를, 미혼여성의 출산기피로 인한 출산률 저하를 추측해 내기 위해서는 조출생률과 합계출생률을, 그리고 전체적인 출생아 규모의 변동은 출생아 규모변동추이 지표를 사용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젊은이들의 결혼기피 현상도 작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여성에게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혼연령과 조혼인율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또한 가족해체의 문제가 가족구성 자체를 거부하는 미혼

들의 미출산(결혼지연 및 거부)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은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비율, 연령별 출산율 그리고 합계출산율 퍼센트 변화와 구성요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적 요인들을 해명하기 위한 구조적 요인으로서, 저출산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IMF라는 경제적 위기이후 심화되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 혼인별 경제활동참가율,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관한 견해, 연령별 보육대상 아동존재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그리고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통해 자본주의의 지구적 발전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맞벌이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나 가족과 노동시장의 가부장적 질서는 여성들이 저출산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이론들을 재구성하여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 발전과 가부장제적 가족의 해체 문제를 저출산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기존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논제를 살펴보다 보니 현실적 리얼리티를 반영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자료를 직접 생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출산기피가 구조적 강요 속에서 능동적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 데에 그친 것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제2장 이론적 고찰

이 장에서는 가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사회변동과의 연관성을 통하여 살펴보고 한다. F.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과 우에노 치즈코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가부장제적 가족의 기원과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성립 및 지구적 발전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가족의 변화와 관련한 국내의 논의들 중에서 포스트모던적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의 이론적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선택적 해체론과 강제적 해체론으로 구분하여 볼 것이다.

1.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1) 가부장제의 출현



엥겔스는 생산양식에 따른 경제적 진보가 결혼과 가족의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특히 모오간의 『고대사회』(1887)에 기대어 분석하였다. 유물론적 견해에 따르면, 역사에서 결정적 계기는 궁극적으로 직접적 생활의 생산 및 재생산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생존수단의 생산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그 자체의 생산, 즉 종족의 번식이다. 사회조직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생산에 의하여, 즉 하나는 노동의 발전단계에 의하여, 다른 하나는 가족의 발전단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동의 발전이 미약할수록, 사회적 부가 제한될수록 사회제도는 혈연적 유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 혈연적 유대에 기초한 사회구조가 노동생산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사적소유 및 교환, 빈부의 차 그리고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나타남으로서 계급적 기초가 발전한다. 새로운 사회적 요소들은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조건에 적응시키려 하며, 마침내 이 이 양자의 불상용성은 완전한 변혁을 가져오게 된다.

엥겔스에 의하면, 씨족이라는 제도는 압도적 다수의 경우가 군혼형태의 푸날루아 가족에서 직접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군혼 가족제도 하에서는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가는 알 수 없어도 누가 그의 어머니인가는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전체 가족의 ‘모든’ 자녀를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며, 또 그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지닌다. 그러면서도 그 여자는 역시 자기의 친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구별한다. 여기서 명백한 바와 같이 군혼이 존재하는 한, 혈통은 다만 ‘어머니’ 편에 따라서만 확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모계’만이 인정된다(F. 엥겔스, 1989). 이른바 원시공동체사회에서의 가족은 경제적 불평등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으며 원시적이긴 하나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상태가 유지되면서 가족은 모권제에 기초한 집단혼의 형태를 띠었다는 것이다(함인회, 1995).

그러나 원시공동체 사회가 붕괴되고 최초의 사회적 분업(농경과 목축의 분리)에 따르는 생산력 증대, 교환, 사적소유가 나타남으로써 ‘가부장제’가 출현하게 되었다.

목축종족의 발생으로 인한 최초의 사회적 분업은 전대미문의 부의 원천을 조성하였고 새로운 사회관계를 발생시켰다. 목축, 농업, 가내수공업 등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증대됨으로써 인간의 노동력은 자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했고 전쟁이 그것을 충족시켰다. 즉 전쟁포로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최초의 사회적 분업은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재부의 증대 및 생산활동 분야의 확대와 더불어 주어진 모든 역사적 조건 아래서 필연적으로 노예제도를 가져왔다. 최초의 거대한 사회적 분업의 결과 두 계급, 즉 주인과 노예, 착취자와 피착취자로서 최초의 거대한 사회적 분열이 일어났다(F. 엥겔스, 1989).

엥겔스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사회적 분업의 형태를 고찰하면서, 일부일

처제를 공유제에 기초한 집단혼에 대해 사유재산제가 승리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엥겔스에 의하면, 부계상속이 이루어지고 부의 축적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일부일처제는 결코 개인적 성애의 소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애와는 절대로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왜냐하면 혼인은 종전 그대로 어디까지나 타산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부일처제는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즉 원시적·자연발생적 공동소유에 대한 사적소유의 승리를 기초로 한 최초의 가족형태였다. (F. 엥겔스, 1989; 72).

함인희에 따르면, 엥겔스는 가부장제적 일부일처제가 남성과 여성의 조화와 화해에 기초한 제도라기보다는 하나의 성이 다른 한 성에 의해 종속됨으로써 나타난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출산을 둘러싸고 남성과 여성간에 일어난 분업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분업형태요, 일부일처제 가족에서 나타나는 남녀간의 적대감이야말로 최초의 계급갈등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인희, 1995).

일부일처제는 재화가 한 사람의 수중에, 그것도 남자의 수중에 집중된 결과 발생하였으며, 그 재화를 다른 남자가 아니라 바로 그 남자의 자식에게 상속시키려는 욕망에서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아내의 일부일처제가 필요했으며, 따라서 이 아내의 일부일처제는 결코 남편의 일부일처제의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장애물로 되지 않았다(F. 엥겔스, 1989).

이러한 가부장제의 출현은 가부장제의 여성억압이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만 논의 될 수 없는 것으로 구체적인 물질적 기반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질적인 경제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자본주의가 경제적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 가부장제와 모순적 접합을 이루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부장제의 물질 토대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2)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모순적 접합

마르크스페미니즘은 근대사회에서 여성이 ‘자본주의’의 억압만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억압도 동시에 받고 있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사회주의 해방론의 계급지배 일원설도,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성지배 일원설도 취하지 않는다. 우에노 치즈코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의 오류는 시장의 지배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시장이 자연과 가족이라는 외부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가 심리적인 지배와 억압이 아니라 물질적인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를 이데올로기 차원에 국한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페미니즘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두 사회 영역의 병존을 인정하여 그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생각한다. 생산관계와 재생산관계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역사적으로 고유한 형태를 취하여 상호 ‘변증법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립된 근대 산업사회의 고유의 양태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는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라고 부른다(우에노 치즈코, 1994).

‘성지배’에 ‘물질적 기초’가 있다는 인식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성지배가 행사되는 제도적인 장은 가족인데, 가족의 분석에 마르크스주의가 유효한 것은 근대 가족이 자본주의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근대 가족이란 사적영역의 확립이 자본주의에 선행하지 않기 때문이다(우에노 치즈코, 1994).

가족은 권력과 자원의 배분에서 격차가 존재하는 개인의 집합으로 가족 안에는 분명히 남성의 지배와 경제적 착취가 존재한다. 즉 가부장제의 물질적 기초란 남성에 의한 여성 노동력의 지배를 뜻하며, 이 지배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필요한 생산자원에 다가가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그리고 여성이 성적 기능을 통제함으로써 유지된다. 그러므로 개개의 남성이 태도를 바꾸거나 의식

을 변경함으로써 가부장제를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물질적 기반-제도와 권력구조-을 변경시킴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다(우에노 치즈코, 1994).

여성억압의 물질적 기초는 가사노동이라는 부불노동이 남성가장에 의한 전유와 그로 인한 여성의 노동으로부터의 자기소외라는 사실을 가리킨다(우에노 치즈코, 1994). 텔피는 ‘가사노동’은 ‘노동’일 뿐만 아니라 ‘생산적’ 노동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여성에 의해 무상으로 수행되는 이런 생산양식을 ‘가내제 생산양식’이라고 부르며, ‘가내제 생산양식’을 성립시키고 있는 지배구조가 ‘가부장제’라고 말한다(Delphy, 1984).

가사노동은 산업사회에서도 가부장제적인 가내제 생산양식 안에 머물고 있는 노동이다. 자본주의는 그 범위 내에서 가내제 생산양식과 손을 잡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자본주의는 가내제 생산양식을 해체하는 대신에 그것을 변용하여 재편했다.

결국 가족이란 자본주의의 재생산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사회는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이 서로 모순, 저축되도록 생산양식과 재생산양식 사이를 편성한 사회이다.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이 두 관계가 이율배반적일 때에 한해서이다(우에노 치즈코, 1994).

재생산이 여성에게 성별에 따라 배당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여성에게는 재생산이 생산과 저축된다. 근대사회가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이 서로 모순, 저축되도록 생산양식과 재생산양식 사이를 편성한 특수한 사회라는 것, 여성은 언제나(남성도 마찬가지로)생산자인 동시에 재생산자였으나 산업사회만이 생산과 재생산의 성별배당을 통해 여성의 재생산노동을 극대화하고 남성의 재생산노동을 극소화한 특수한 사회라는 것이다. 여성은 생산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재생산자라는 관점을, 남성은 여성의 생산노동을 전유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 노동(성, 출산, 육아)을 전유한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구축해나간다(우에노 치즈코, 1994).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남성과 여성과 마찬가지로 생산자이면서 재생산자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생산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이 모순되도록 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 질서는 여성을 재생산자로서 할당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에서 여성을 배제시켰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가족이라는 비가시적 영역을 존속시킴으로써 가족을 자본의 재생산 영역으로 재편한 것이다. 즉 자본주의가 가부장제라는 물질 토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여성의 가사노동이라는 부불노동에 대한 남성들의 전유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은 가부장제의 억압과 동시에 비생산자로서 더욱 의존적이고 이차적인 존재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발전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모순적 접합을 통해서라고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계속 추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3)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세계적 차원의 축적체계에서 여성의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억압이 갖는 위치에 대한 미스와 미터의 분석은 세계체계론의 분석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된 미스와 미터의 분석은 가부장제를 보편적인 남성지배가 아니라 신국제분업의 구성요소로 위치짓고 있다(이미경 1998).

미스는 신국제분업을 통한 자본주의 구조조정과 국제적 차원의 계급, 젠더, 인종 간의 상호관계를 해명하고 있다(Mies, 1986; Mies et al., 1998). 미스의 분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종속’ 또는 ‘억압’이 아니라 ‘착취’ 개념이다. 미스는 ‘여성의 착취와 억압이 물질적인 생산관계나 경제체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미스의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라는 용어는 여성의 억압을 유지하는 현재의 체계를 가리킨다(이미경, 1998).

이미경에 따르면, 미스는 비자본주의적 주변을 자본축적의 불가결한 조건으로 인식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통찰을 분석에 결합하고, 세계시장과 국제분업에 대한 논의에서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론과 프랑크의 종속이론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다. 세계체계론과 관련되는 분석은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세계적 규모에서 여성, 식민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 체계로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는 이러한 수탈에 근거하여 전세계적 규모에서 작동한다고 이해된다(이미경, 1998).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로 요약되는 미스의 입장은 ‘자본주의가 가부장제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스에게 있어서, ‘식민지화’와 ‘가정주부화’라는 두개의 과정은 밀접하게 상호관련되어 있다(Mies, 1986). 신국제분업에 대한 미스의 분석에서, 제3세계의 새로운 산업노동자는 여성이고, 이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품목의 소비자는 제1세계의 여성으로 드러난다. 제3세계에서 여성은 축적을 위한 최적의 노동력이 되는데, 그들의 가정주부적인 위치가 저임금의 유순한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제1세계의 여성은 산업이전의 결과로 실업자가 되어 소비자로 전락한다. 미스의 핵심적인 이론적 명제는 제1세계와 제3세계에서 서로 다른 형태를 갖는 여성의 ‘가정주부화’이다. 미스에 의하면, 가정주부화가 근대자본주의의 산물이고 이전에는 이러한 형태의 생산이 존재한 적이 없다(이미경, 1998).

세계체계론의 가계분석은 단순히 고용 관계에서 젠더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가계라는 제도가 세계경제에서 기능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세계체계론의 재생산에서 무급의 가사노동의 관계는 가사노동이 가치법칙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세계경제는 가치법칙의 완전한 실현에 장애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의 모순 중의 하나는 가치법칙의 최적의 기능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부장제적 위계는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기본적으로 모순되는 구시대의 유물 또는 남성 지배의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가부장제는

곧바로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근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며 세계경제의 기본적인 정치적 구성요소가 된다. 세계경제의 제도로써 가계를 다시 개념화하는 것은 여성종속의 문제를 세계적 규모의 축적의 한복판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월러스틴에 따르면, 자본의 끊임없는 축적이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의 성격을 정의하고 그 존재이유가 된다(Wallerstein, 1991). 가계는 이러한 목표에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적 발전을 겪는다. 그 과정은 세 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첫째, 가계와 공동체 간의 연관을 파괴하는 것이다. 핵가족화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다. 둘째, 생산의 사회적 분할은 세계 노동력의 '부분적'인 임노동화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개별 가계의 보상양식이 부분적인 임노동양식이다. 셋째, 노동력으로의 가계의 참여는 종속성 그리고 젠더라는 점에서 계층화되어 있다. 세계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개념장치로서 기존의 가족의 이미지, 즉 핵가족화의 경향, 임금소득 단위, 경제활동과 무관한 자율적인 영역이라는 이미지는 가계가 세계경제에서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 왔다(이미경, 1998).

이렇게 가계는 생산영역에서 비가시화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변화된 유형의 가계는 불완전한 프롤레타리아화로 묘사될 수 있으며, 임노동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산발적이며, 가계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가계는 생계활동으로 보충하는데, 중심유형과 임금과 생계활동의 관계는 역전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으로의 양극화는 세계시장의 경기변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은 프롤레타리아 가계로 하여금 실질적인 삶의 조건에 가장 발가벗겨진 채로 놓이게 한다. 이는 노동력의 재생산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체 자본가 계급에게는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미경, 1998).

한편 미스와 미터의 분석은 신국제분업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착취가 구성되는 방식을 다루고 있는데, 미터는 이러한 주변노동자화는 단지 주변적인 유형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중심으로까지 과급되는 광범

위한 현상임을 보여준다. 미터는 신국제분업이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착취형태를 포함하고, 이 과정에서 제3세계 및 제1세계에서 여성노동력이 중심적이라고 주장한다. 신국제분업의 발전은 자본의 두 가지 방향으로의 운동이 낳은 결과이다(이미경, 1998).

첫 번째 국면에서는 자본이 싼 노동력을 찾아서 제3세계로 이전된다. 특히 여성의 종속적 조건 때문에 여성 노동은 강도높게 착취되며, 제3세계 여성은 자본을 위한 노동력 저수지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이 강력한 사례를 제공한다(이미경, 1998).

두 번째 국면에서는 신축적인 노동실천의 새로운 형태들이 중심에도 출현하는데, 이 경제적 구조조정 형태들은 값싸고 신축적인 일회용 노동력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만족시키는 노동력은 여성이다. 특히 전자와 의류업의 경우가 그 전형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제1세계의 공장도 기혼의 여성노동자를 선호한다. 고용주들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섬세한 자질을 비숙련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노동협약의 새로운 형태는 비공식 부문에서 하청노동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증가하는 것은 이 노동력이 노동조합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이미경, 1998).

이와 같이 개략적으로 정리되는 두 개의 국면에서 자본주의적 경제조직화의 새로운 형태는 중심 노동자와 주변 노동자로의 양극화를 포함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신축적'인 임시직에 인종적이고 젠더적인 분할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제1세계에서는 흑인 여성과 제3세계에서는 수출가공지대의 미혼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선호에서 더 많이 착취될 수 있는 기혼의 여성노동력으로 선호도를 이전하는 경향을 포함한다(이미경, 1998).

미터의 분석은 미스처럼 가부장제를 통합적인 체계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최적의 노동력으로 여성이 포섭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이미경, 1998).

따라서 미스나 미터의 분석은 '발전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으로 위치

지워진다. 신국제분업에 대한 이들의 분석은 세계경제의 발전 논리 자체가 여성에게 얼마나 착취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발전과정으로의 여성통합은 다름 아니라 1960년대를 통하여 생계생산의 파괴이고, 1970년대의 불황으로 인한 주변적 노동자화이고, 1980년대의 외채위기와 더불어 자본의 구조조정 의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미경, 1998).

이 장에서는 가부장제적 자본주의가 세계적 차원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것은 여성이나 가족의 문제가 개인이나 일국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스가 말하는 '가정주부화'는 제국주의화와 상호연관된 과정이며, 미터가 말하는 '신국제분업'은 자본의 축적전략이 여성이라는 주변적인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과정이다. 즉 세계적 자본의 확장은 가부장적 성적위계를 이용한 여성을 통합함으로써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2. 페미니즘의 가족해체론



오늘날 한국가족이 겪고 있는 바 가족의 구성과 그 가치에서 전형적인 가족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혼율 증가, 결혼율 및 출산율 감소, 탁아 및 부양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 등에 대해 한국가족이 위기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이념형적 핵가족의 해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내려지고 있다. 하나는 다양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핵가족 위기론이다. 다양화론은 다분히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포스트모던 사회, 포스트모던 가족에 대한 전망을 갖고서 주장된다. 그러나 핵가족 위기론은 한국의 지난 30여 년간의 가구구조 변화를 핵가족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단위로서의 해체, 해체를 가

저은 세계경제적 맥락에서 핵가족 내지 가족의 위기로 해석한다(문소정, 2003).

1) 다양화론 - 선택적 해체론

먼저, 포스트모더니즘 가족론에서 주장하는 다양화 해석은 구조기능론적 가족개념의 단일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은 구조기능주의 가족개념으로부터 벗어나 가족은 가족 밖의 사회, 정치, 경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족의 이해는 단일하지 않으며 오히려 갈등과 권력이 지배하는 곳으로 보고 특히 가족의 여성 억압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새로운 가족개념은 포스트 페미니즘에 의해 보다 더 그 본질성과 보편성이 해체되는데, 페미니즘이 여성의 입장과 시각에서 구성된 가족개념을 바탕으로 가족의 다양성을 언급하였지만 여성이라는 범주를 동일화 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여성 내의 차이에 주목한다.

따라서 포스트 페미니즘은 인종적 차이와 함께 민족, 종교적 배경, 계급, 성적 지향 등의 차이가 여성들의 삶의 경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편적이고 단일한 여성 억압을 설명하는 메타 서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가족은 사람들이 가진 하나의 사고방식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즉 가족에 대해 ‘어떤 본질적 특성’을 가진 하나의 고정된 사물로 인식하는 경향을 철저히 해체하여 ‘가족은 특정 사회집단이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보면 특정한 방식으로 가족을 정의하는 시도는 옳지 못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도는 가족의 다양성을 모호하게 하기 때문이다(문소정, 2003).

이러한 포스트 페미니즘적 가족론에서 주장하는 다양화 해석은 포스트모던 사회를 배경으로 한 미래가족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즉 근대적 핵가족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대신 개방성, 복잡성 그리고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포스트모던 유연한 가족이나 포스트가족의 가족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다(이동원 외, 1999; 이현송, 2003).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이 더 이상 서구 산업국가들에서만 보여지는 현상은 아니며, 한국가족 또한 이러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한다(서수경, 2002).

이러한 이유나 배경을 소개하면, 미래가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화, 이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 포스트모던 출산논리로 인한 출생률의 감소, 이혼을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전주곡으로 인식함으로써 비롯되는 이혼율증가, 부모자녀관계의 느슨화, 사랑과 주거 그리고 부모됨의 새로운 관계양식의 출현, 여성이 점차 남성에게 의존적이지 않게 됨으로써 미래가족형태에서 더욱 매력적인 대안형태가 될 독신가족 등을 거론하였다(서수경, 2002).

특히 이러한 가족 변화의 배경을 여성의 개인주의의 확대로 해석하는 이현송은 개인주의가 사회적 인간의 의식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시킬 때 가족이라는 범주의 현실 적합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70년대 이후 미국에서의 가족가치 논쟁은 여성의 개체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 노력과 개인을 가족에 매몰된 존재로 보는 전통적 가족과의 충돌로 해석하였다(이현송, 2003).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는 한국가족의 다양화를 위기라기보다는 재구조화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취한다(문소정, 2003). 함인희는 가족이 해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재구조화를 지향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험적 장의 하나로써 가족의 해체적 위기론이 사회적 담론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IMF사태” 직후 가족이 보여준 대응 양식을 분석하였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부계혈연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원리에 입각한 제도로서의 가족이며, 관념/이념으로서의 가족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공고히 작동해감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개

별 가족의 경험적 수준에서 보면, 결혼연기, 출산보류, 합가 혹은 일시적 귀농, 별거가족 구성 등 개별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과 질과 더불어 가족주기에 따라 다양한 가족전략을 활용하여 경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는 점에서 재구조화 과정을 지니고 있다는 잠정적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보았다.

또한 신자유주의 물결이 위협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근대가족으로의 재구조화 과정을 진행해가고 있다는 주장들은 가족의 위기적 지표들을 오히려 재구조화 지표로 제시된다고 하면서 한국 가족은 사회적 강요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형화되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미되고 있다고 보았다(함인희, 2003).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론에서 비롯된 선택적 해체론은 포스트모던한 문화의 실현으로 인한 다양한 가족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서구적 개인주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심화와 자본의 지구적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구조적 측면에서 그 근원적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위협 속에서 개별가족들의 전략은 위기라기보다는 적응과 변화의 과정으로서 판단할 수 있다. 즉, 총체적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서 개별가족들의 가족경험과 선택은 '다양화'라고 해석되어지며, 그러한 특수한 가족개념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좀 더 포스트모던한 가족개념을 필요로 한다.

2) 가족위기론 -강제적 해체론

한편, 다양화 해석을 비판하고 위기로 해석하는 입장은 전통적 이념형을 주창하는 보수주의자들과 페미니즘, 그 중에서도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의

입장이다. 이들은 오늘날 한국 가족이 지난 수십 년 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로 인해 가족의 안녕과 복지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본다.

보수주의자들의 가족논쟁은 전통과 근대성의 충돌로 무엇이 정상가족인지에 대한 신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전통가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가족의 위기로 진단하면서 전통가족으로의 회복을 주장한다. 반면 근대핵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전통가족의 위계성과 불평등성을 거부하고 민주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가치의 확산이 가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확신한다(함인희, 2003).

가족의 다양화를 위기로 보는 또 다른 입장으로 이미경은(1999) 70년대 이후 출현하여 1990년대 초까지 전개된 미국의 가족가치 논쟁, 즉 다양화를 가족의 위기로 해석하는 논리(보수주의 가족가치재건)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계기로 부상 중이지만, 한국의 가족위기 징후가 미국의 현상과 유사하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이미경, 1999).

이미경은 금융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함께 시작된 한국의 가족위기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남한 가족은 세계경제의 반주변성이라는 조건에서 미국 핵가족과는 달리 대량소비 없는 가족임금, 복지제도 등으로 국가에 의해 가족이 강력하게 지원되었던 적이 없는 핵가족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임금이 전체 노동자 계급으로 확대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중산층과 중공업자 등의 노동자계급 상층에서만 실현되었기 때문이다(이미경, 1999).

나아가 이미경은 핵가족의 위기에 페미니즘은 대응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인 자유주의는 가족의 위기를 개념화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가족연구에서 페미니즘의 관점 도입은 가족 내부의 성별역압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족연구의 한 단계 진전을 가져왔지만, 마르크스주의적 가족연구는 상대화되어 사회전체라는 관점을 상실한 핵

가족 내부의 성별분업의 문제로 후퇴한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경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도 가족의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포스트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형식의 출현은 소비주의 미디어와 문화산업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와 공명하고, 이와 투쟁할 수 없는 무력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보편성보다는 주변성,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가족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해체적 경향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문소정, 2003).

따라서 이미경은 미국에서는 가족변화 논쟁이 1980년대 초반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다시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보수주의와 가족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대립구도로 진행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마르크주의 페미니즘만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라는 맥락에서 가족의 위기를 다시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적 가족형태의 딜레마들이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의 일반적 위기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진행중인 가족의 위기를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총체적 위기의 일부이며, 따라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 전체를 재조직해야만, 그리고 가족은 사회경제적 삶의 다른 측면이 재조직될 때만이 변화가 있다고 보았다(권현경, 2002).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가족의 변화를 병리화하면서 가족주의²⁾ 회복 통

2) 가족주의는 가족에 대한 헌신과 강한 일체감, 가족끼리의 상호지원 및 가족의 지속성에 대한 신념이다. 최근의 개인주의화 경향은 오히려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라고 표현되는 다양한 가족들 속에서도 이러한 가족주의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며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이 비판하고 있는 가족주의는 가부장적 가족이 전형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요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는 가족중심주의로서 부계혈연주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가족서열적 사회관계와 가족의례를 중시하는 지배문화에 근거하며, 부모공경과 자식사랑의 서정적 가족주의를 내포한다(이영자, 2005). 가족가치를 복원함으

한 핵가족의 복원을 대안으로 보는 보수주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의 가족의 위기가 구조적 위기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위기가 무엇인지 재개념화하게 해주고 있다. 이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가족해체는 금융자본의 지구화의 진전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가족의 문제들은 세계적 자본의 위기의 결과인 것으로, 그에 대한 구조적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3) 한국 상황에서의 적용가능성

이상의 가족변화에 대한 논의들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해석으로, 선택적인 다양화로 해석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강요된 위기로 보는 부정적이 측면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화된 핵가족위기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변화는 긍정적인 맥락에서 개인주의화 등 포스트모던 사회의 논리나 문화로 인한 선택적 해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 측면에서는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실직 위협 등으로 인한 가족부양 단위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강요된 해체도 있다(문소정 2003).

두 입장은 현재 한국가족의 변화가 사회변화의 산물이며 그 결과로서 전형적인 가족으로부터 탈가족화 되어가고 있다는데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은 그러한 동일한 현상에 대한 해석이 구성되어 나오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으로(문소정, 2003) 현재의 가족의 변화에 대한 대안적 측면에서 서로

로써 전통적 가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전통적인 부부의 성역할 분업이 근원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서, 현대사회에 현저해지고 있는 여성들의 공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여전히 '비여성적'이며 '반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리고 두부모가정만을 정상적 가정으로 규범화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양태의 가정들을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있는 가족형태로 보는 왜곡된 이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교적 가족담론의 강화는 이러한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보완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인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는 가족에 대한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레스키, 1983).

신자유주의의 여파가 가족에 미친 직접적 영향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의 불안정이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가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가족 공동체의식의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강력하게 등장한다. 사회구조적 원인의 책임을 가족의 어깨 위에 전가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런가 하면 시장 자본주의 논리는 가능하다면 친족이나 가족 유대 혹은 공동체적 유대에서 자유로운 개인, 자신의 노동을 쉽게 상품화할 수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Stacey, 1991; Young, 1995).

이것은 자본주의는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파괴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녔으면서도 다양한 가족적 대응들을 병리화하면서 가족을 여전히 자본적 위기에 대한 안정망으로 삼고자하는 것이다.

이미경의 지적처럼 한국사회의 가족논쟁은 한국가족의 역사라는 점에서 출발하거나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와의 관련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라는 맥락에서 가족의 위기를 다시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가족의 위기는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의 일반적 위기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탈가족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라는 인식하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구조와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변동이 필요하며, 가족변화에 수반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가족에 대한 신념은 가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함인희, 2002) 개개인이 경험하는 가족 현실의 다면성과 일정한 괴리를 나타낼 것이며, 개개인이 경험하는 가족 현실의 다면성과 가변성은 병리화될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확대를 인정한다

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개념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페미니즘, 포스트 페미니즘의 다양한 가족의 개념 내지는 가족개념의 해체가 필요하다.

서구와는 다른 한국사회, 특정 집단의 여성의 진술과 가족체험에 기초한 가족개념의 구성 및 가족개념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연한 가족개념을 발견하고, 한국적 가부장제나 한국가족의 특수성도 특정 여성 집단의 체험이나 담론을 통해 재구성하거나 재확인하는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담론적, 문화적, 언어적 차원에서 규명된 한국가족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을 간과할 수 없다.(문소정, 2003).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입장과 더불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해석에 대해 좀 더 치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이효재는 서구의 포스트모던 사회를 배경으로 출현한 가족의 다양화에 대한 서구적 요인을 한국가족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효재는 미국가족의 가족구성이나 결혼이 한국에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다른 경험이 작용하고 있음을 통찰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가족형태 다양화의 기저에는 60세 이상 노인층의 증가,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증가와 같이 부모의 이혼, 가출, 유기 등으로 인한 핵가족의 내적 변화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혼인의 자유화와 가족의 다양화에서 우리는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며, 나아가 이에 적응하려는 변화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가족 내적인 변화의 요구이자 사회전반에서 양성평등과 자율성을 실현하는 총체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이효재, 2003).

이미경은 미국사회의 가족논쟁은 우리사회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없으며, 페미니즘과 포스트 페미니즘이 가족의 위기를 개념화할 수 없게 하고 그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직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만이 대안이라고 했다. 물론 현재 한국사회의 탈가족화 현

상은 개인주의적 자유화로 인한 선택적 요인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지만, 분명 결정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요인들, 무엇이 그것을 선택하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지적인 국가 정책들 속에서 개별 가족의 다양한 실현은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 탈가족화 현상은 사회변동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변화와 가족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화의 요구이며 가족재편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3장 한국사회에서의 가부장제적 가족의 해체

1.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과 가부장제적 가족의 위기

산업구조 형성의 초기에는 아동과 여성이 가장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노동시장에 나서는 시기를 거친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서 자본주의적 팽창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성에 따른 전문화가 일터와 가정을 축으로 나타나고 ‘가족임금 체계’가 정착된다. 더아가 자본주의가 무르익는다는 것은 확대된 경제 영역의 독자적 세력이 정치권력과 맞서는 수준에 이르게 되며, 이 시기를 통해 표준적 핵가족 형태의 붕괴가 일어난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골격을 형성하여 그 자체내의 힘이 막강하게 부상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가족의 변화는 ‘가족 임금 체계’의 확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가족임금 체계’에서 남성은 원칙적으로 거대 규모의 공장을 차질없이 돌아가게 하는 부속품으로, 여성은 그 부속품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보조하면서 동시에 상황 변동에 따라 부족한 노동력을 메울 산업예비군으로 존재하게 된다(조혜정, 1999). IMF관리체제로 인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가장의 경제능력은 현실적으로 없어져가고 있으며 가족임금제는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 여성의 역할이 크게 증가된 가부장적 가족을 필요로 한다(조순경, 1998).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은 때로는 가정 제일주의, 때로는 일하는 여성상이 사회적으로 숭상되는 상황을 번갈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의 활용은 가족 내 성별분업과 가부장제적 관계에 혼란과 변화가 야기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었으며 선진산업국의 경우, 가부장적 이해와 자본의 이해의 줄다리기는 전쟁 시, 전쟁 후 그리고 경제공황 시에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났음

이 지적되고 있다(조은, 1986).

이 장에서는 한국의 자본주의화 과정에 따라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어떻게 타협하면서 여성을 지배하여왔는가를 근대형성기(자본주의 성립기), 경제성장기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하의 위기를 겪은 1990년대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자본주의 성립기

공장이나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농업중심 사회에서는 경제가 가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을 뿐더러, 개인에게 있어 노동과 사생활의 분리도 있을 수 없었다. 개인은 가족의 일원으로서만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분업은 경제와 가족간 그리고 공사간의 분업이 아니라 신분에 따른 분업과 가족 내의 분업으로 축약된다. 가족 내 분업의 지배적 형태는 남녀와 세대간의 분업이었고, 이는 가정의 통솔 하에 수행되었다(조형, 1991).

이러한 가족 중심의 생산방식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주의 생산 영역으로 편입되어 가정은 생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동시에 여성은 사회적 영역인 가정 전담자로서 임금 생산자인 남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별 분업이 고착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대두는 생산규모의 확대와 임금 노동자층을 형성하는 구조적 변화를 유발했으며 전 산업시기에 생산활동을 했던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여성은 경제적 무능력자로 남성가장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무보수의 가사노동은 결국 남성 지배 가부장장권의 물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여성노동의 가정에 의한 점유는 여성 노동자에게 노동력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자본가에게도 유리하다(최윤선, 1989).

가족사 연구나 비교 근대화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시장화의 진행 역시 당초부터 시장 외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 아래서만 성립되었다는 것

이다. 우리나라 경우 여성노동력은 첫 출발에서부터 가부장적 예속상태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구조 속에 편입되었다.

한국의 여성노동이 대량으로 산업노동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한일합방이 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공업여성 대부분이 방직공업에 흡수되었으며, 이것은 일제하에서 값싼 연소 여공의 대거 활용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노동력의 공업부문 진출은 내용상으로 볼 때는 전통적 성별분업의 연장이었으나, 이와는 별도로 여성들은 완전히 남성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조은, 1986).

일제하에서 방직업에서의 여성노동진출은 여성노동이 주요 생산노동에 참여한 계기였다기보다는 새로운 성별분업과 여성예속의 시작으로 또한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결혼비용을 벌거나 단기적으로 가계보조를 위해 출가한 미혼여성들로서 “스스로 생계를 도모하지 않는 미혼의 부인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노임의 저하를 저지하는 한도가 없으며, 얼마든지 싼 임금이라도 그 수입은 생계의 보조로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회에서 인식되었다. 또한 출가여공들의 수입 대부분이 가족에 송금된 사례나 취업 시 선금이 그들의 아버지에 지급된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그들의 집밖 노동은 한편으로는 가족 내 가부장적 통제를 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에서 비온정적인 가부장적 통제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조은, 1986).

초기 자본주의 단계를 지나면 여자가족원은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진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축출하거나 배치할 때 작용하는 요인은 자본의 이해와도 결부되지만, 여성노동력이 가장의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부장제하의 반자율노동자라는 데에도 기인한다. 그래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가사노동에 남자아닌 여자를 배치하게 된다. 이것은 가부장적 요소의 이러한 저항들에 의해 결국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이 인간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조형, 1991).

자본주의적 경제기반이 향상되어가면서 노동조합의 결성에 의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입법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입안은 직종간에 성별분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하트만은 이러한 결과는 남성노동자가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이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위협적인 변수로 작용하리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성 노동자는 임금투쟁의 일환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보다 가족임금을 요구했다. 가족임금의 성립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남성의 지배기반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직장, 높은 임금을 가져야 한다는 합리화의 기반을 제공해준다. 둘째, 여성의 일차적 책임은 가사노동, 자녀돌보기 그 외 서비스 활동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최윤선, 1989).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축출하고 남성 가장 노동자를 고용한 선택은 시장의 경제합리성의 논리적 귀결이다. 그 이유는, 복지입법이나 노동자보호법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족을 해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가족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게 치인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이 ‘여성과 어린이’를 축출하고 ‘근대가족’이란 사적 영역을 시장 밖에 소외시켰을 때, 시장은 시장원리에 있어서는 잡음이라 할 수 밖에 없는 비시장적 원리를 은밀하게 도입하여 그것과 타협했다(우에노 치즈코, 1994).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는 시장이 ‘근대가족’의 유지를 위해 지불한 비용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이에 역사적으로 성립되었던 “빅토리아 조의 타협”이라고 부른다. 그 결과 성립된 시스템이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2) 경제성장기와 여성노동시장 형성기

한국의 <근대>는 1960년대의 고도 성장기를 통해 완성되었다. 그것은 동

시에 가족의 <근대>의 완성, 즉 도시·고용인·핵가족 안에서 “남편은 일, 아내는 가정”이라는 근대형 성별 역할 분담이 완성되고 대중화된 것을 의미했다.

1960년대 고도성장기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개의 시작이었다.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1960년대 이후로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공업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접합되는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조혜정, 1999). 마이홈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성별 역할분업 규범을 완성시켜 여성을 가정에 가둔 순간부터 여성을 가정에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단 <근대 가족>의 성별 역할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가부장제’를 온존시킨 채 기혼 여성 노동시장을 성립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것은 ‘주부 노동자’의 탄생이었다(우에노 치즈코, 1994).

1980년대 이후에는 기혼여성 취업자가 증가하고, 세대간 노동력 재생산에서의 여성역할이 강화된다. 자녀의 교육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자녀의 학업상의 성취가 어머니의 인생의 성취와 동일시된다. 이것이 가정의 직장관계로 인한 가족의 별거를 정당화하기도 하고, 모자관계가 부부관계에 우선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가부장적 가족의 적응 전략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가부장적 가족이 존속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조형, 1991).

우에노 치즈코는 ‘주부 노동자’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가정에서 밀어내는 요인으로 첫 번째 것은 출산수의 감소에 의한 포스트 육아기의 조기화이다. “자녀는 둘만”이라는 규범은 ‘강제적 요인’에 의한 시장적인 ‘자유방임’의 간접통제 아래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외형을 취하면서 실현되었다. 자본주의는 이미 여성들에게 평생을 통해 100% 재생산자이기를 요구하지도 허용하지도 않는 단계에 들어서 있었다.

밀어내는 요인 가운데 두 번째 것으로는 가사노동의 대폭적인 효율화를 들

수 있다. 가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가사노동의 여러 부분을 급속하게 사회화, 즉 상품화시켰다. 가사 효율화 기제는 여성을 가정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여성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사 효율화 기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것들을 구입하기 위해 밖에 나가 돈을 벌 필요가 있다는 순환 속에 빠져 들었던 것이다(우에노 치즈코, 1994).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1960년대의 '성장경제'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요인을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풀타임 노동을 여성에게 강제하는 한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는 미혼이나 비혼 여성노동자만이 노동시장에 등장한다. 고용노동이 주부의 역할에 저촉되는 한 여성을 가정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타협 형태로 제안한 획기적인 발명이 파트타임이란 취업형태이다. 이러한 주부의 노동자화를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제2차타협이라고 부를 수 있다(우에노 치즈코, 1994).

“빅토리아 조의 타협”이라고 불리는 제1차 타협은 여성을 노동자이면서 가사노동자, 즉 파트타임 주부이자 동시에 파트타임 노동자인 ‘주부 노동자’로서 역할을 이중화시킨 ‘신 성별 역할분담’을 확립했다. 자본주의로서는 ‘주부 노동자’의 발명은 득의의 계책이었다. 노동시장은 경계선 외부에 ‘노동력 예비군’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없으면 노동력 상품의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우에노 치즈코, 1994).

주부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을 하는데 그 수입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가계 보조형 수입, 이것이 수입을 바라고 노동시장에 들어온 주부 노동자에 대한 자본주의의 분배형식이며 또한 자본주의가 가부장제를 온존시키는 수단이었다. 파트타임 취업과 가계보조형 수입의 맞물림은 자본주의와 여성 사이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아래의 여성)사이였다(우에노 치즈코, 1994).

임노동에 의한 아내의 가계에 대한 (눈에 보이는) 공헌은 보다 교묘한 형

태로 가부장제를 보완하고 성지배를 강화한다. 그것은 근대형 ‘성별 역할분담’ 아래서 여성은 가사노동자가 되지만 ‘신 성별 역할분담’ 아래서 여성은 임노동자이면서 가사노동자라는 ‘이중 역할’을 떠맡기 때문이다(우에노 치즈코, 1994).

불황기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실업률이 더 높으며 노동력의 주변화가 더욱 심해진다. 요컨대 불황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가혹하여, 그들을 주변적인 파트타임 노동자로 자리바꿈하도록 작용한다. 이 경우 주변 노동에 보다 적합한 여성쪽이 살아남아 직장을 잃은 가장 노동자 대신에 ‘푼돈’을 벌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여성의 ‘주변화’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가부장제적 가족이다. 가부장제적 가족은 자본주의의 고도성장기에 자본의 생산성 증대를 떠받치는 토대로서 노동력을 재생산해 왔고 가족 내에서 여성이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족 내의 여성의 위치는 생산자로서도 저임금의 주변 노동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3) 1990년대 이후 자본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으로 1970년대 후반 이후 생산의 핵심적인 요소비용으로서 임금을 감소시키려는 출혈적인 경쟁을 야기한 수출지향적인 산업화는 제3세계의 외채위기를 출현시킨다. 출현하는 경제구조에서 서비스부문과 비공식적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늘고 있다. 다양한 가족 성원의 경제활동의 다양화가 경제생활의 점증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보장한다(Nash, 1988).

따라서 1960년대를 통하여 생계생산의 상실로 인해 침식되고 1970년대 불황에 의해 악화된 여성의 박탈된 위치는 1980년대 외채위기와 함께 점차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이미경, 1998).

한국의 경우 1997년에 IMF 위기를 맞게 된 이후부터 신자유주의에 의한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의 자유화가 필수적인 '개혁'정책으로 대두되어왔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기초적 사회복지의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약자를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미비한 한국사회에서 인권과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소지가 많다. 특히 가족을 최선의 사회안전망으로 간주해온 한국사회에서 IMF 위기는 여성에게 가족의 부양과 복지를 책임지는 이중, 삼중의 부담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한다. 여성들은 신자유주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부양능력을 상실해가는 남성가장들을 대신해서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나마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영자, 2005).

IMF 시대에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며 대부분의 직업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현재와 같은 고용불안정 상황에서 한 가구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남성가장은 많지 않다. 1997년 10월과 11월 사이의 실업자조사에 의하면 남성 실업자의 1/5 정도가 부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남성 실업자의 경우 전체의 38.5%가 '배우자 소득'이 주된 수입원이라고 답하고 있다(금재호, 1997).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가장의 경제능력은 현실적으로 없어져가고 있다, 우리의 고용현실은 남성 가장의 임금으로는 한 가족 생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가족 임금제는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조순경, 1998). 2005년 3월 현재, 한국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근 노동자는 52.3%,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직 노동자는 33.3%, 1개월 미만인 일용직 노동자는 13.4%에 달해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높은 고용의 불안정성 하에서 육아부담의 가중함에도 불구하고, 가구는 점점 더 맞벌이 전략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김정희, 2005).

그러나 신자유주의 노동전략에 의해 여성의 노동조건은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초래된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여성의 조건의 특성은 노동력의 여성화와 여성노동력의 주변화현상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

다. 우선 지구화 전략은 노동시장의 규제철폐, 생산과정의 분화, 새로운 수출 특화 등으로 저임금의 '유연'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여성화'를 진전시키고 여성노동을 점점 더 세계적 차원의 생산체계에 통합시킨다(신인령, 2002). 그런데 여성의 노동시장 편입은 전지구적 자본 축적체계의 하나로 등장한 신국제 노동분업과 국제적 하청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김현미, 손승영, 2003). 신국제분업체계는 가부장제의 성별분업을 확대재생산하는 신고전경제학의 페러다임에 의거한 것이며 신자본주의적 글로벌 경제는 이를 적극 이용, 확대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유연화' 전략을 구사한다(이영자, 2005).

한국의 경우 노동의 유연화는 기능적 유연성보다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비전문 단순노동이 수량적 유연성에 기초한 것이다. 수량적 유연화 전략은 여성을 비정형화된 고용형태의 주변부 노동시장의 인력으로 적극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수량적 유연성을 위한 비정규직화는 IMF이전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온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와 연동되어 있다. 1985년 이후부터 여성이 편중되어 있는 서비스산업 등 3차 산업에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가 급증한 것을 말한다(이영자, 2005).

이처럼 여성이 고용불안정, 여성노동의 질적 저하, 비정규직의 여성화 등으로 나타나는 신자본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은 여성노동자성을 적극 이용하고 극대화하는 방식에 의해 가능한 것이며, 그 결과 여성은 이등 직업신분이나 산업예비군에 속하는 주변적 노동자로 양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영자, 2004).

이상에서 본 것처럼 신자본주의적 지구화 전략은 노동시장 내의 가부장적 관계, 성별분업체계와 남성중심적 노동개념을 지속시키면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부과되어온 여성의 조건의 심각성을 전면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성불평등의 격차심화와 빈곤의 여성화에 따른 여성문제는 점점 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뿐 아니라 가족해체와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

2. 가부장제적 가족 해체의 구조적 양상

최근 가족의 변화를 ‘위기’로 보는 사람들은 높은 이혼률과 낮은 출산율,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비혼과 만혼의 증가 등 가족해체의 지표들을 여성들의 이기심이나 개인주의 확산에서 원인을 찾는다. 그러나 이들이 우려하는 ‘위기’는 ‘가부장적 가족의 위기’이다. 한편 한국가족의 변화를 후기 근대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젠더구조의 불안정과 근대 핵가족의 위기로 보고 있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가부장적 가족 이후에 나타나는 가족과 일상생활의 변화는 젠더 질서의 재편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재경, 2005).

남성 가장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부계혈통주의 원리를 우선하는 사회규범, 호주제를 포함하는 가족법, 가족임금을 전제로 한 노동시장, 가족주의와 성별분업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성과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인한 여성들의 변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진전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 등은 성별분업과 위계를 체계화한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에 도전이 되어왔다(이재경, 2005).

이 장에서는 가족의 위기가 ‘가부장적 가족의 위기’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유교적 가부장제를 유지시킨 주요기제들이 세계적 자본과의 만남 속에서 해체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한다.

1) 대잇기의 종언

우리나라 전통가족에서 가계의 계승은 철저한 부계 중심으로(한남제 외 공저, 1994) 혈통을 잇는 것이 그 중심 과업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 특히 아들을 낳고 기르는 모성역할은 부계혈통의 가족 내에서 가장 중요

한 역할로 간주되며 여성이 이 역할 수행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시되었다(김경애, 1999). 그러나 현재 한국의 가족 위기는 가부장적 가족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부계혈통주의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우리나라 출생성비는 104.3이었으나 1995년에는 109.5 1990년에는 116.8 그리고 1995년에는 113.4이다. 그러나 2000년 110.2 그리고 2004년 현재 108.7로 점차 완화됨을 볼 수 있다<표 1>. 우리사회에 관찰되고 있는 성비불균형도 출산에 전통적 규범이 관여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남아를 통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부모의 압력이 젊은 세대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요인들은 약화되고 있다.

<표 1>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지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전체	109.5	112.4	104.3	109.5	116.5	113.2	110.2	108.7
첫째 자녀	110.2	120.0	105.5	106.0	108.5	105.8	106.2	104.9
둘째 자녀	109.3	109.8	104.2	107.8	117.0	111.7	107.4	107.0
셋째 자녀	109.1	110.8	102.7	129.2	188.8	177.2	141.7	135.2
넷째 이상	109.4	105.5	99.1	146.8	209.2	203.7	166.9	148.6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1979, 1989, 1999, 2001).

최근 소자녀관이 정착되는 가운데도 아들을 낳아야한다는 관념은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태아 성별감별이 가능해지면서 자연성비의 왜곡이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출생순위가 올라갈수록 성비가 높아지고 있음을 통해 아들선호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 1980년 중반 이래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성비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표 9>의 출산율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3에서 1985년에 1.7로 급격히 하락하여 계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현재 1.16이라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자녀양육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상황이 전통적 관념을 앞지르는 것으로, 아들 딸 구

별 없이 하나만이라는 소자녀관이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소자녀관 정착은 현존자녀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를 과거와 비교하면,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 1명 이하의 자녀의 비율은 인구억제정책이 폐지된 직후의 조사인 1997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승권, 2003).

<표 2>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 (단위: %)

연도	1명이하	2명	3명이상
1994	36.1	53.3	15.1
1997	29.3	58.3	12.4
2000	31.7	57.4	10.9

주: 1991년 자료는 15-19세 기혼부인, 1997년-2000년 자료는 15-44세 기혼부인을 분석 대상으로 함

공세권 등,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조남훈 등, 1997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승권 등,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표 3> 부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연도	반드시 가져야함	반드시 가질 필요 없음			모르겠음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1994	90.3	8.5	-	-	1.2
1997	73.7	26.0	16.6	9.4	0.3
2000	58.1	41.5	31.5	10.0	0.5

공세권 등,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조남훈 등,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승권 등,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이는 결혼을 하면 출산하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졌던 관념이 약화되고 있

음을 반영한다<표 3>. 1991년 기혼여성들은 90.3%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에는 그 견해가 58.1%로 급격히 감소한다. 반면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1991년 8.5%, 1997년 26.0%, 2000년 41.5%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도 1997년 9.4%에서 2000년 10.0%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가족의 소규모화는 단순히 가구원의 수가 줄었거나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으로만 읽을 수 없으며 한국인의 ‘대잇기’라는 뿌리 깊은 가치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사 한다(조은, 2005). 한국가족의 소규모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2002년 현재 평균 가구원수는 3.12명으로 줄어들었으며<표 4>, 이는 소자녀화와 연결되고 곧 저출산과 관련된다. 이는 한 명 이상의 아들을 두고 있을 가구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이며, 부계로 ‘대 잇기’가 실현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4> 가구의 소규모화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년도 지표	1960	1970	1975	1980	1990	2000
평균가구원수(명)	5.5	5.24	5.04	4.55	3.71	3.12
1인가구 구성비(%)	-	-	4.2	4.8	9.0	15.5

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2) 부계혈통주의의 혼란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행동을 규정하는 또 다른 규범은 유교의 불갱이부의 윤리로, 이는 정절이데올로기가 되어 전통사회 여성들을 옥죄었다. 정절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여성은 사별하거나 또는 남편이 축첩을 하거나, 자신을 유기한 경우에도 재가를 하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되었다(김경애, 1999). 최근 전통가족의 변화에 대한 논의들 중에서는 가족의 규모, 형태, 기능, 가족관계는 점점 현대화되어 가는 데도 아직도 가족 생활을 규정하는 규범은 대체로 전통적 가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문소정, 1995)

그러나 앞서 논의에서 한국가족의 소자녀화와 저출산 현상은 이미 한국인의 '대잇기'라는 뿌리 깊은 가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표 5>는 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 또한 부계 성씨에 기반한 가족 질서의 혼란을 보여준다(조은, 2005).

<표 5> 이혼율과 재혼율

종류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조이혼율	0.6	1.0	1.1	1.5	2.5	2.9	
결혼에 대한 이혼율비	5.9	10.3	11.4	17.1	35.9	-	
총혼인에 대한 재혼의 비율	여성	4.1	5.7	7.1	10.0	14.5	20.4
	남성	6.4	7.7	8.4	10.0	13.1	18.2

통계청, 인구통계연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을 살펴보면 1993년 이후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1997년을 계기로 급격한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이혼율비도 급격하게 늘어 2000년 현재 평균 3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셈이며, 또한 전체 혼인 중 재혼한 비율은 여성의 경우 더욱 급속하게 늘어나 2004년 현재 혼인 10건 중 2건 정도가 재혼인 결혼이다. 이러한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은 부계 혈통주의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표 6>은 혈연중심의 가족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생각을 세대 별로 보면 조부모의 경우 가족은 '같은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56%로 지배적인 반면, 청소년이 경우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라는 견해

가 43%였다. 청소년의 경우 사랑이 깨질 경우 가족은 붕괴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표 6> 가족에 대한 느낌 (단위: %)

항목	청소년	부모	조부모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3.4	3.7	6.3
같은 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	37.9	41.4	56.4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	43.2	45.0	25.6
서로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	15.5	10.0	11.8
사례수	400명	400명	400명

문화방송, MBC 가족백서, 2004

또한 이혼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아이는 남편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여겨졌으나 최근 그 반대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모자가정의 증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김경애는 모자가정의 연구에서 여성들이 이혼에 있어서 자녀를 맡기로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성에 의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남편과 시가가 자신들의 '씨'를 맡아 기르기를 거부한 결과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은 자녀들이 남편의 가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집의 대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돌보는 전통적 부계 혈통주의 생활문화가 소멸되고 있으며 따라서 남성중심의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가계 계승의 관념이 파괴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녀양육비 부담과 효 규범의 파괴로 인하여 자녀로부터의 보상 가능성이 희박해 가는 현실에서 자녀는 부계혈통을 잇는 도구적 존재로서의 그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계혈통주의라는 이데올로기보다는 현실적 경제적 이해가 더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경애, 1999).

한편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심각한 성비의 불균형은 신부수입이란 현상으로 이어진다. 전체 출생성비가 1985년부터 110선에 이룸으로써 이들이 결혼연령에 이른 시기에 남성 100명중 1명이 신부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힘들게 되었다. 국제결혼의 추세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성에게

게 있어 더욱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2003년 현재 여성의 약 4배에 이르고 있다(이재경, 2005).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시작된 신부수입이라는 처방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심각한 성비불균형으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부계혈통주의의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해온 3대원칙, 동성동본불혼, 성불변의 원칙, 타성양자금지 등이 모두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 동성동본불혼은 1998년 가족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지만 나머지 2대원칙은 2005년 호주제 폐지시까지 유지되어왔다. 현재는 호주제 폐지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일단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해온 부계 혈통주의 3대 원칙은 모두 폐기된 셈이다. 호주제 폐지 과정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가족의 붕괴’였다. 이때 가족의 붕괴란 사실 부계혈통 가족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조은, 2005).

3) 저출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의 성과로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가족계획사업 추진 후 20년만인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08명에 도달하였고 1987년에는 1.55명까지 낮아졌다(신은숙, 2005). 그 후 소폭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1년에는 1.30, 2002년에는 1.17로 급격히 낮아져 2004년 현재 1.16이라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승권은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 요인은 결혼연령 상승에 의한 미혼율 증대와 여성의 소자녀관 정착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김승권, 2003). 앞에서 언급한 소자녀관이나 이혼과 재혼의 증가는 모두 기혼의 저출산과 관련된다. 그러나 대잇기를 걱정하기 전에 배우자도 찾지 않으려는 세대가 등장함으로써 결혼과업과 출산과업이라는 용어가 미디어에 등장했다(조

은, 2005). 이러한 용어의 등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출산율·혼인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특히 경제위기이후 급격히 하락한 출산율의 원인이 미혼의 결혼지연이나 기피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비혼이나 만혼에 영향을 주는 초혼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매년 상승하여 2004년 현재 남자 29.8세, 여자 27.0세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초혼연령의 상승은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혼인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2>조혼인율의 감소는 평균초혼연령에 감안되지 않는 독신율이 고려되어 있어, 비혼의 증가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 1998-2004년 사이의 감소추세가 과거 1970-1990년 까지 20-30년 사이에 일어나 감소추세를 앞지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혼인율이나 조출생율과 합계출산율 감소에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표 9>, <표 12>. 이것은 초혼연령이 상승이 여성들이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한 취업기회의 확대,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라기보다는 결혼에서 오는 부담으로 인한 기피 현상으로 보여진다. 즉 IMF라는 대량실업의 사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어 놓았고, 이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이유가 되었다. 특히 생계보조자로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남성위주의 고용시장의 차별적 관행은 변화지 않았고, 우리사회에서 가사와 양육이 여성의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은 여성에게 있어서 더욱 망설여지는 선택이 되었다.

결혼의 지연이나 기피는 가족구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부계로의 대잇기만이 아니라 대잇기조차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부장적 가족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며, 가족의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재편되는 과정일 것이다. <표 7>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의견을 세대별로 살펴본 것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무자녀 가정 또는 독신 세대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정상가족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개념의 변화를 요구한다.

<표 7>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의견 (단위: %)

항목		청소년	부모	조부모
결혼하고도 자녀를 갖지 않는 무자녀 가정	괜찮다	47.9	39.1	27.5
	안된다	20.7	33.0	53.0
	무어라 말할 수 없다	31.4	27.9	19.5
결혼할 나이가 지나서도 혼자 사는 독신 가정	괜찮다	62.9	49.4	38.4
	안된다	14.8	27.0	43.5
	무어라 말할 수 없다	22.3	23.6	18.1
사례수		400명	400명	400명

문화방송(2004), MBC 가족백서

4) 남성부양 가족의 허구성

가족임금제는 가족 중 남성 한 사람에게 ‘가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주는 제도이자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것이다(이영자, 2005). 가족임금은 남성중심 가부장적 가족의 물질 토대로, 이의 성립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또한 노동시장에서 이차적인 노동자로 전락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기에서 가족임금에 기반한 남성의 생계부양자 모델에 위기를 초래한다. IMF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는 남성의 경제적 기반의 근본 자체를 흔드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공사 영역으로의 성별분업, 그에 기반한 성역할 관념은 고실업 시대 가족의 해체, 아동 및 청소년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구주가 늘어나고 여성임금이 생계부양에서 점점 더 중요성을 갖게 되면서 남성생계부양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임금제는 비현실성

과 모순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처럼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의 현실성이 없어지고 그 경제적 토대가 침식당하는 현실에서도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 위기 아래서 국가는 시장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족이라는 비시장 영역에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조순경,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성중심의 온정주의와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는 여성을 일차적 희생양으로 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이영자, 2005).

그러나 가족임금제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생계노동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날수록 남성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며 결국 가부장적 가족의 재생산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남성부양자 모델은 여성의 생계능력을 필요로 하는 가족의 현실적 요구와 모순되는 것이며, 이러한 모순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남성의 부양능력 상실에 따른 가족해체의 위기(가족원의 가출, 별거, 이혼)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영자, 2005).

또한 실업은 단순히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는 경제적 현상만은 아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업은 기존의 사회 문화적 가치 체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기도 하다. 기존의 성역할, 그에 기반한 가족 윤리 및 가족 체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예들 들어 결혼은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여성에게 결혼은 더 이상 경제적 생존을 위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 남성의 평생 고용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조순경, 1998).

<표 8>을 보면 1998년 결혼에 대해 73.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2년 69.1%로 감소하였고,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경우는 1998년 23.8%에서 2002년에는 27.2%로, 그리고 ‘결혼에 반대’하는 경우는 1998년 1.3%에서 2002년 1.9%로 증가하였다. 이제 결혼은 일종의 ‘선택’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결혼에 대한 애착이 여성에게서 더욱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연도	성별	결혼에 찬성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결혼에 반대		모르겠다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말아야 한다	
1998	전체	33.6	39.9	23.8	0.7	0.2	1.4
	남	36.9	42.6	1.1	28.9	0.1	1.4
	여	30.5	37.4	18.4	1.4	0.2	1.5
2002	전체	25.6	43.5	27.2	1.7	0.2	1.8
	남	29.5	47.8	19.9	0.9	0.2	1.7
	여	21.9	39.4	34.1	2.6	0.3	1.8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 각년도

이로 인해 공사영역의 이원화에 의거한 성별분업과 이를 토대로 한 가부장적 가족모델이 위협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성별분업의 부담을 여성 일방에게만 전가시키는 가족모델은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이나 양육의 부담을 기피하게 만들 소지가 많다. 최근에 와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여성의 조건의 악화가 결국은 가부장적 가족의 위기와 사회 재생산의 위기를 유발한다는 것을 항변해주고 있다 (이영자, 2005).

제4장 저출산의 강제적 구조화와 출산기피

1. 저출산의 실태

최근 출산수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유배우 부인당 평균출생아수와 조출생률 및 합계출생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유배우 부인당 평균출생아수는 기혼여성의 출산수준을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저출산에 기혼여성들의 결혼기피나 지연이 기여도를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가족해체의 위기가 쟁점화되었던 것은 90년대 들어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관련 지표들은 90년대 이후로부터 최근까지, IMF를 기점으로 해서 그 실태와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4년에 인구대치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1987년에는 1.6명까지 낮아졌다. 그 후 1993년에는 1.75명으로 늘었다가 1999년에는 1.42명으로 하락해서, 2002년에는 1.47명으로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2001년에는 다시 1.30명으로 낮아져, 2002년에는 1.17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최저수준에 도달한다(원정원, 2004). 출산율 증감의 기점들은 여러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특히 한국의 출산력은 경제위기나 정부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 이래로 하락하는 출산율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병행하여 실시한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약간 상승세를 타던 출산율은 IMF의 영향으로 다음해인 1998년에 다시 하락한다. 그리고 2002년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위기감에서 정부가 출산장려에 나서면서 잠시 소폭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이후의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출산억제 정책을 폈던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기피'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출산장려'로 출산정책을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표 9>에서 합계출산율은 1990년 이후 1992년까지 약간씩 높아지고 있으며, 1993년부터 1995년 정도까지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다가 1996년 1.58로 낮아진 후 계속 떨어져 2002년 1.17로 기록되었던 것이 2003년 1.19로 소폭 상승한 후 다시 낮아지고 2004년 현재 1.16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표 9> 조출생률과 합계출생률

연도 \ 지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조출생률	31.2	24.8	22.7	16.2	15.4	16	13.8	13.2	13.4	11.6	10.3	10.2	9.8
합계출생률	4.53	3.5	2.83	1.7	1.59	1.65	1.47	1.42	1.47	1.3	1.17	1.19	1.16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한편, 유배우 부인당 평균출생아수를 살펴보면<표 10>, 1991년 2.2에서 1994년 1.8로 하락한 이후 변동이 없이 유지하다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0년 1.7을 기록하였고 2003년 현재 다시 IMF이전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거의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유배우 부인당 평균출생아수 (단위: 명)

연도	1991	1994	1997	2000	2003
평균출생아수	2.2	1.8	1.8	1.7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각년도

저출산의 문제는 특히, 1998년 출산율의 마지노선이라고 암암리에 가정되던 1.5이하로 낮아지고 2002년 1.17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사회문제화 되었고 최근 정책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저출산이 단기적으로 총출생수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표 11>. 1970년 1,006,645명에 이르던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는 636,780명, 2001년에는 557,228명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출생수는 가임여성의 규모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출생아 규모 변동추이 (단위: 명)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1
출생아수	1,006,645	865,350	658,552	636,780	557,228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2. 저출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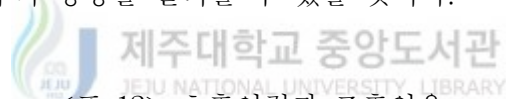
저출산의 원인을 설명하는 일반적 설명들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저출산에 대한 총체적인 이유로는 개인·사회적 현상과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모 연령의 점진적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증가, 경제적 불황에 따른 취업, 보육 및 사교육 부담, 교육수준의 증가, 여성가치관의 변화, 이혼증가와 혼인감소, 남아선호와 과학화된 의료시설과 피임, 자아실현 등에서 여성은 출산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각자의 이유를 가지게 된다(원정원, 2004).

이 장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출산을 저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결혼관련 지표들을 현상적 요인으로, 간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구조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출산이 사회경제적인 제반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여성의 개인적 선택으로 보이는 출산이 사회경제적 변화들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다. 즉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이는 결혼의 지연이나 기피가 사실은 그 배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들에 의해 강요된 선택임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1) 현상적 원인-혼인율, 초혼연령, 미혼율

혼인율은 출산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가족해체를 가족구성자체를 거부하는 ‘저출산’ 이전의 ‘미출산’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혼인률과 초혼연령의 변화를 통해 특히 미혼여성들의 ‘결혼과업’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초혼연령과 조혼인율

연도 지표	1970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조혼인율	9.2	10.6	9.3	8.7	9.4	8.4	8	7.7	7	6.7	6.4	6.3	6.4
초혼 연령													
남	27.1	27.3	27.8	28.4	28.4	28.6	28.9	29.1	29.3	29.6	29.8	30.1	30.6
여	23.3	24.1	24.8	25.4	25.5	25.7	26.1	26.3	26.5	26.8	27	27.3	27.5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우리나라 조혼인율은 1990년 9.3에서 1991년 상승하여 1992년까지 9.6을 유지하다가 1993년 9로 낮아지고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 1996년 9.4로 다시 상승한다. 그러나 1997년 8.4로 낮아진 이후 매년 하락하여 2004년 현재 6.4로 급락하였다. 조혼인율은 오일쇼크 이후 1980년 10.6으로 상승했다가 199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IMF가 일어난 이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의 감소추세가 지난 20-30년간 일어난 감소추세를 앞지른다는 점이다. 1970년대 초 전세계적 경제불황기에 7.3이라는 혼인율을 기록했던 이후 다시 IMF라는 경제위기 이후 현저하게 추락하고 있음은 경제적 곤궁의 시기라는 역사적 사건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결혼율의 감소추세를 성별 평균 초혼연령을 통해 살펴보면, 여자는 1990년 24.8세였던 것이 2004년 현재 27.5세로, 남자도 마찬가지로 1990년 28.8세에서 현재 30.6세로 계속 늦춰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혼인율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초혼연령의 변화에 있어서도 IMF이후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남자의 경우 197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마다 각각 0.2년, 0.5년이 늦춰지고 1990년에서 1995년 사이 5년 동안에 0.6년이 늦어졌으나 IMF가 일어난 1997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매년 0.2년 내지 0.3년이 늦어지다 현재 전체 보다 0.5년이나 늦어졌다. 여자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하여 1970년 23.3세에서 1990년에 24.8세로 20년 동안에 1.5세가 늦춰졌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 1.8세가 늦춰진 것이다. 이러한 결혼 연령의 지연은 아이를 늦게 갖거나 적게 갖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출생율과 함께 출산율 감소<표 9>에 그대로 반영된다.

한편 혼인의 감소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혼인 지연 현상과 독신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표 13>을 통하여 20-30대 남녀 인구 중 혼인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3> 성별 연령별 미혼 인구 비율 (단위: %)

연령	남자				여자			
	1985	1990	1995	2000	1985	1990	1995	2000
20-24	94.4	96.4	96.3	97.5	72.1	80.5	83.3	89.1
25-29	50.7	57.3	64.4	71.0	18.4	22.1	29.6	40.1
30-34	9.4	13.9	19.4	28.1	4.2	5.3	6.7	10.7
35-39	2.7	3.8	6.6	10.6	1.6	2.4	3.3	4.3

통계청, 각년도 인구센서스에서 계산

만혼은 결혼 및 가족의식의 변화 등에도 영향을 받지만 특히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IMF라는 경제적 동기가 초혼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미혼율의 상승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출산율 하락을 촉진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혼인율을 저출산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 <그림 1>과 <표 14>에서 최근 저출산의 요인이 기혼여성의 저출산 보다 미혼여성의 출산기피가 좀 더 기여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연령별 출산율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3

<그림 1>은 출산력의 변천과정을 연령별로 살펴본 것으로 모든 연령에서 예외 없이 출산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출산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연령은 25-29세로 1975년 263.8명에서 2002년 111.3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것은 이 연령대의 여성들이 2002년 현재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출산력 저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여성들의 결혼기피, 곧 혼인연령의 상승과 출산지연이 여성들의 출산력 감소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표 14>에서 전반적인 출산력 감소의 원인들을 나타내는 출산력억제 변수들의 기여정도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표 14> 합계출산율 퍼센트 변화의 구성요소

연도	1955	1960	1965	1970	1975	1985	1990	1995
구성요소	-1960	-1965	-1970	-1975	-1980	-1990	-1995	-2000
합계출산율 변화율	5.6	-16.8	-17.6	-13.4	-24.6	-18.3	1.2	-5.4
혼인상태별 구성	-3.9	-6.3	-3.7	-3.5	-5.6	-6.5	-5.8	-9.9
결혼연령	-6.9	-7.6	-3.4	-3.7	-4.9	-7.9	-5.6	-9.6
이혼·사별	3.0	1.3	0.5	0.2	-0.7	1.4	-0.2	-0.3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9.5	-10.5	-14.1	-9.9	-19.1	-11.8	7.0	4.5
피임	-	-1.7	-9.5	-5.9	-23.0	-13.4	-5.3	-7.4
인공유산	-3.1	-5.1	-4.6	-4.0	3.9	1.6	12.3	11.9
기타	11.0	-3.8	-	-	-	-	-	-

전광희(2002)



<표 14>은 지난 40년 동안 출산력변천의 과정에서 출산억제변수들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억제 변수들은 결혼연령, 피임, 인공유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피임과 인공유산이 기혼여성의 출산력과 관련이 있다면, 결혼연령은 미혼여성의 출산력과 관련이 있다. 이는 출산력 변천의 두 시기 즉, 가족계획이 실시되었던 1960-70년대 사이와 최근 IMF를 전후로 하여 살펴해보았을 때, 출산력 억제 변수들의 기여도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65년부터 1990년까지는 피임과 인공유산이 출산력 감소를 주도한 두 핵심변수였던 반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혼인연령이 저출산 유지에 주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인공유산의 출산억제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유배우 출산율을 상승시키고 있는 한편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결혼연령이 출산율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최근의 저출산 현상에 있어서 미혼의 출산기피가 더욱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광희는 이상자녀수가 출산 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자녀수요’에 핵심적 변수라고 보면서, 출산력 변천이 시작된 1985-2000년의 15년 동안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는 2.0명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2) 구조적 원인

한국의 인구구조는 국가주도의 인구 억제 정책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정부가 정책을 철회한 이후에도 완만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권태환은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 우리사회에서 출산율 감소가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의 출산 억제정책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발전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가능했던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4). 김홍숙도 <1974년 세계출산력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국출산력 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서 가족계획보다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김홍숙, 1982). 따라서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균 2명 정도의 자녀를 원하고 있고, 다각적인 출산율 끌어올리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는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관련지어 설명해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들이 IMF라는 경제적 위기를 계기로 좀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장에서는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혼인율의 감소와 초혼연령의 상승 그리고 독신의 증가 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사회경제적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여성의 교육수준향상,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부담 등을 들 수 있다(김승권 등, 2002). 최근의 논문들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자녀가 제공하는 물리적 심리적 혜택의 축소, 자녀로 인해 부모에게 발생하는 실제 비용, 기회비용의 증가 그리고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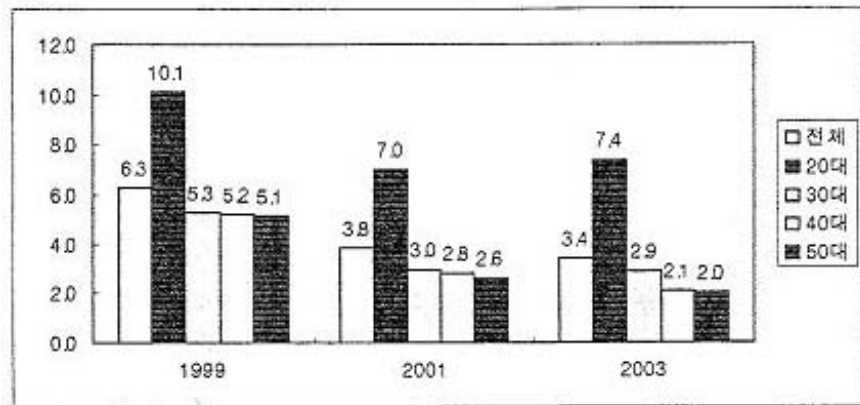
경제적 여건은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경제적 역할 추구는 출산수준과 관련이 있다. 여성이 가족의 형성여부나 시기를 자신의 직업적 커리어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한다면 결혼이나 출산시기 또는 출산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여성의 직업적 커리어 추구가 결혼·출산과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출산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은 결혼 연령 상승으로 지적되고 있다(전광희, 2002). 최경수는 2000년대 초반의 출산감소와 저출산 지속을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여건의 악화로 보고 있다. 청년실업의 증가, 직업의 불안정은 가족 형성 시기를 앞두고 있는 젊은 층의 결혼이나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4).

한국의 2003년 실업률은 30.4%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0.3%증가하였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후 중·장년층의 실업률은 2%를 유지한 반면, 20대의 청년층 실업률은 7.4%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그림 2>.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평생직장이라는 고용관념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실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면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런 높은 청년층의 실업률은 결혼의 결정을 미루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혼인연령이 급격히 상

승하면서 미혼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1997년 이후의 급격하게 증가된 이혼율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해체의 위기를 경험하게 한다.

<그림 2> 청년층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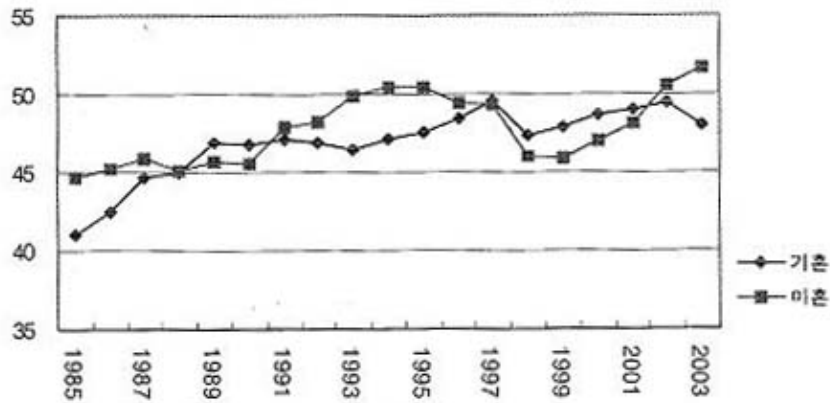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3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60년대 26.8에서 2004년 49.8%(기혼 48.7%, 미혼 53.3%)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미혼·저 연령 여성으로 대표되었던 6,70년대 여성노동력의 구성은 1980년대 이후 기혼·고 연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그림 3>.

또한 전체 취업 여성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80-2000년 기간 중 전체 취업여성 중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8% 감소한 반면, 기혼 여성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만큼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이르면 77.8%에 이른다<표 15>.

<그림 3> 혼인별 경제활동 참가율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199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1996-2003)

<표 15>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연도	미혼	기혼				계(수)
		소계	유배우	사별	이혼	
1980	28.0	72.0	59.0	11.6	1.4	1000(5,222)
1990	24.5	75.5	62.8	11.0	1.7	1000(7,376)
2000	22.2	77.8	65.5	9.3	3.0	1000(8,70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산업화 초기 대량의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것에 기인되며,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자녀교육비의 증가 등에 따른 비용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과 여성 자신의 개발 및 경제추구 등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김승권, 2003).

실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1970년대까지는 미혼여성들의 저임금 직종 종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기혼여성의 취업은 여성가구주 가족 또는 저소득층 가족에만 한정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즉, 기혼여성의 취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아울러 취업부인을 둔 개별가족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김승권, 2003).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 안전판 가설은 여성의 취업유형은 경제주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예비군적 노동력으로 경기상승국면에는 충원되고 하강국면에는 축출된다고 본다. 즉 여성노동력은 경기변동의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서 불안정한 노동력이라는 것이다. 반면 여성이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형태라는 점에 주목하는 대체 가설은 불황기에 기업은 비용절감과 생산의 유연성 증대를 위해 여성은 남성 노동력에 대체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은 완만하게 증대된다고 본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가설은 어느 하나가 단순하게 지지된다기보다 중첩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정혜영, 2001).

특히 경제위기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낮아졌다가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3>.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남성의 고용증가는 주로 상용고(63.1%)에 의해 주도된 반면에 여성의 고용증가는 임시고(62.1%)에 의해 주도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감축이 있었던 1998년에는 남성의 고용감소가 주로 임시고(94.6%)에서 있었던 것에 비해서 여성의 고용감소는 상용고(83.3%)에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99). 서비스업과 유통업 부문의 여성노동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우선해고의 대상이 되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가 비정규직 형태로 재취업하는 임시직, 계약직, 용역직, 파트타임이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여성노동력이 재편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003년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중 남성 정규직이 31.3%, 여성 정규직이 12.4%, 남성 비정규직이 27.2%, 여성 비정규직이 29.1%를 차지하며 여성근로자중 약 70%가 비정규직이다(정형욱, 2004).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점차 변화하여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

다는 견해가 남녀 모두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7>은 현재 여성들이 일을 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준다. 1995년과 1998년 조사를 보면 ‘가사부담’의 비율이 52.5%로 다른 장애요인고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높다. 2002년 ‘육아부담’과 ‘가사부담’을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육아부담’은 38.8% ‘가사부담’은 8.9%로 나타났다. 육아부담이 여성 취업 장애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변화 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을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취업을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6> 여성취업 장애 요인에 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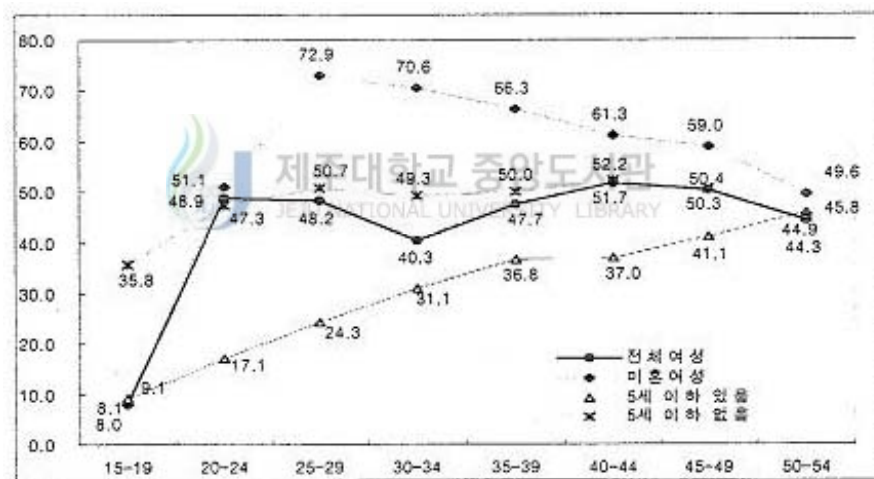
연도		여성의 능력	사회적 편견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승진 등 근로 여건	구인 정보 구하기 어렵다	육아 부담	가사 부담	기타	모르 겠음
1995	계	4.3	24.7	8.7	9.5			52.5	0.3	
	여	3.7	24.8	6.8	9.9			54.6	0.2	
	남	5.0	24.5	10.8	9.1			50.3	0.3	
1998	계	4.3	28.2	10.0	12.5			39.9	5.2	
	여	4.0	27.6	8.1	13.0			42.2	5.0	
	남	4.6	28.8	11.9	11.9			37.5	5.3	
2002	계	2.3	22.8	6.3	12.4	2.0	38.8	8.9	0.1	6.4
	여	2.0	21.7	4.5	13.2	2.4	41.1	9.2	0.1	5.8
	남	2.6	24.0	8.1	11.5	1.6	36.3	8.6	0.1	7.1

통계청, 사회통계조사(1995, 1998, 2002)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혼인상태별, 보육대상 아동 존재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육대상인 아동의 유무로 살펴보면, 만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20-24세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1%, 25-29세는 24.3%에 그쳤다. 같은 20-24세의 연령대의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1%였고, 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9%였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은 미혼여성의 같은 연령대 보다 20-24세는 34.8%, 25-29세는 46.8%로 낮은 경제활동율을 보였다. 결혼은 했으나 5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세가 48.9%, 25-29세 50.7%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각각 31.8%포인트, 26.4포인트 높았다. 20대 여성들은 결혼유무와 5세 이하 자녀의 유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림 4> 연령별 보육대상 아동존재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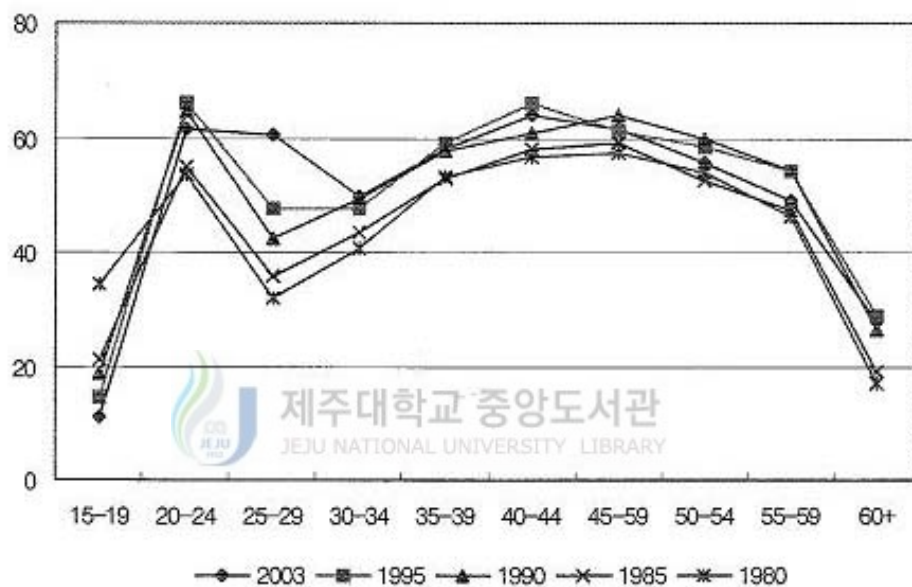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형적인 M자형 참가율이 확인된다<그림 5>.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결혼-출산-양육의 생애주기와 밀접히 맞물려 노동시장의 퇴장과 재진입 과정이 명백히 M자형을 그리고 있다. 미혼의 연령대로 추측되는 20대 전반과 자녀 양육기를 보낸 40대 이후의 취업률이 가장 높으며, 결혼·임

신·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5-34세의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의 취업이 생애주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개인 여성들에게 양육과 관련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다(이재경, 2004).

<그림 5>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 2004

주부의 경제활동은 모성역할의 일환이며 모성역할 수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주부노동자의 수입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계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즉 아내, 어머니 역할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 우에노 치즈코는 자본이 파트타임 취업의 발명으로 여성에게 주부의 역할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노동형태를 제공하였고, 이것은 출산수의 감소에 의해 포스트 육아기를 조기화하면서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에 저촉되지 않도록 임노동과 가사노동이 타협한 형태라고 보았다(우에노

치즈코, 1994).

또한 <그림 5>에서 1995년과 2003년의 25-34세 여성들의 취업률을 보면, 이 연령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80년대 비해서 2003년 현재는 M자형 곡선은 유지된 채 최저점이 상승하고 최저점을 형성하는 연령이 이동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여성의 최저 경제활동참가율 연령은 25-29세, 32%였으나 2003년 현재 30-34세, 49.8%로 이동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결혼, 출산, 양육으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여성들의 비율이 감소한 것임과 동시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을 최대한 연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혼, 만혼의 증가와 이로 인한 혼인율의 감소는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증가 추세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이재경, 2005). 이러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이중의 억압에 대해 여성들의 선택은 결혼율의 저하와 이혼율의 상승 및 저출산으로 나타난다. 분명히 여성에게만 할당된 재생산노동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러한 것을 여성들이 거부하기 시작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강요된 선택 - 출산기피

우리나라처럼 가족과 모성이 강조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적 가족질서 속에서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 여성은 어머니가 되어야하고 양육은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져야 좀 더 훌륭한 것으로 인식된다.

저출산은 여성이 어머니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가족의 존립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어머니 되기가 힘들다는 것이며, 출산을 줄이거나 출산을 거부해야 할 원인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원인은 가족가치의 상실의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적 위기 상황과 좀 더 관련이 있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여성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직장을 다녀야 하는 동시에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출산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은 돌봄의 영역이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담당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부분생산자이며 부분재생산자가 되었다. 그러나 남성은 여전히 100% 생산자이며, 여성의 재생산 부담은 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분생산자인 이유로, 여성의 노동은 주변화되어 오히려 이중적 부담을 지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구조와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적 영역의 돌봄/재생산 노동을 가치평가하거나 재편하려는 적극적인 정책들도 모색되지 않는다. 현재 돌봄의 역할은 돌보는 자가 기회비용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경쟁중심의 사회에서 불평등한 조건이 된다. 남성은 여성이, 부모가 아닌 자는 부모가, 고용주는 노동자가, 국가는 개인이 돌봄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에 따라 기대되는 결과는 분명하다. 돌봄의 역할과 대상을 축소시키는 것 바로 저출산 현상이다(이재경, 2005).

한국사회는 2004년 현재 가임기간 동안 여성 1명이 낳은 자녀수는 1.16명으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이 주로 여성의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어려움에서 오는 '절반의 타협'이라면, 무자녀가족이나 미혼여성들의 출산거부는 가족구성자체를 거부하는 '출산파업'이라고 할 수 있다.³⁾

3) 저출산의 문제는 고용불안정, 주택마련의 어려움, 치솟는 교육비 등으로 생계부양을 요구받는 남성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남성들의 혼인과 출산의 연기를 상당부분 초래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보육정책의 미흡은 현실적으로 남편들의 도움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이나 남성이 모두 자녀양육자이자 임금노동자이기를 어렵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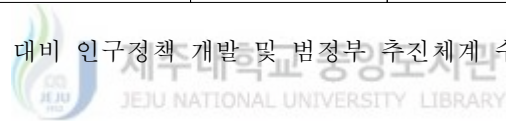
그러나 출산이 유독 여성의 문제로 부각되는 것에 대하여 본고는 가족과 노동시장의 가부장적 질서가 여성에게 더욱 불리함을 여성학적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하였다. 맞벌이가 불가피하고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1차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된 상황에서 직장, 육아, 가사의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여성들은 결혼이

결혼 후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미혼 남녀 전체 응답자의 78.5%가 ‘자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음’과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혼 여성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도 2003년 매우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반드시 가져야함’과 ‘갖는 것이 좋음’을 합하면 90%이상이 자녀출산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7> 자녀관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음	19.3	17.4	21.7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나음	41.1	38.3	44.8
꼭 있어야함	37.4	42.0	31.4
생각해보지 않았음	2.2	2.3	2.1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2003



저출산 현상의 요인을 종합하면 경제적 불안정에 의해 취업을 우선하는 사회현상의 발생,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의 증가,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부족,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에 장애가 되는 여성노동의 차별적인 현실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자녀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가치관 관련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자녀를 적게 낳아 잘 키우려는 생각은 결국 앞서 말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자녀출산의 직접 비용과 기회비용의 상승 때문에 형성된 가치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결과로서 자녀 가치관

나 출산을 거부하거나 미루게 된다.

이는 저출산의 요인에 있어 기혼여성보다는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측면이 더욱 크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해명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것은 출산이 가족 내 남녀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이후 출산율 저하와 결혼 연령의 지연은 움직일 수 없는 한국 가부장제가 유동적인 글로벌 자본과 만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IMF 구제 금융 시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뚜렷한 성차별적 해고와 퇴출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과 임신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임신한 여성이 “퇴출 1순위”이고, 그 다음은 결혼한 여성이 지목됨으로써 결혼을 지연하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IMF처녀”를 등장시켰다. 그리고 2-3년 내에 한국사회는 출산과업과 결혼과업에 시달리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장혜영, 2004).

결국 이러한 현상은 결혼과 출산의 지연 혹은 기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 취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성별분업이 완화되거나 여성들이 이중노동을 지원하는 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성들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노동시장 자체가 근대의 가족규범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의 변화에 비해 노동시장의 재조직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노동시장의 표준 노동자 모델은 누군가(여성) 전적으로 돌봄을 책임지는 가사담당자가 있어 돌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남성 생계부양자가 중심 모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 또는 돌봄 노동을 수행하면서 노동자 모델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성들은 돌봄의 역할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이재경, 2005).

외견상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혼회피와 출산회피는 환경조건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에노 치즈코의 말처럼, 오늘날 자녀의 수가 경제력의 함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낳을 수 없는’ 것이다.

3. 저출산의 유형: 몇 가지 사례

저출산의 형태를 유형화해보면 비출산과 미출산으로 나눌 수 있다. 비출산은 아이 낳기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며, 미출산은 아이 낳기를 연기하는 것이다. 기혼의 경우, 출산계획에 의해 아이 낳기를 뒤로 미뤄두는 것은 미출산에 속할 것이고, 아예 출산계획을 세우지 않고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비출산에 속할 것이다. 미혼의 경우에도 결혼을 연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출산도 연기되는 것은 미출산에 속할 것이고, 아예 결혼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출산도 포기되는 것은 비출산에 속할 것이다. 물론 결혼을 거부하는 미혼으로서, 혼인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 혼자 기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비출산이 아니라 미출산에 속할 것이다.

비출산의 사례로는 김혜경이 2001년도에 조사분석하였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미출산의 사례로는 결혼을 연기함으로써 미출산 상태인 미혼 여성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살펴볼 것이다. 미출산 사례대상과의 심층면접은 2005년 7월 21일(서울, 36세), 11월 11일(제주, 40), 11월 17일(제주, 40), 11월 29일(서귀포, 43)에 이루어졌다.

1) 비출산

김혜경은 새로운 가족현상으로서의 무자녀가족에 대한 분석에서 10년 이상의 부부로 무자녀 가족에로의 선택이 거의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바 있다(김혜경, 2001). 이들 면접대상자들은 불임이 아닌, 의식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자발적 무자녀 가족이다. 이들의 인터뷰 중 무자녀의 선택원인을 중심으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사례 (가)

... 엄마는 직장일에 바빠서 가정일에 무신경했고, 자식들에게도 무관심했다.

내가 당시 느낀 것은 “일과 가정이 두 개가 병행되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었다. 나는 “자식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즉, 부모가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하고, 경제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을 때라야만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갈라 쓰기가 어렵다, “모든 걸 다 잘 할 수는 없다.” 하고 싶은 거 하면 나머지는 버릴 수 있다.

사례 (나)

...그렇지만 난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안 낳는다”고 생각한다. “자식 낳으면 다 잘해주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낳는 것이다. 건강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준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달이다. “그냥 지금처럼 둘이 사는게 행복하고 좋다.” 애가 있으면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버거울 것 같다. ... 남편은 애가 없어도 괜찮다고 그런다. 그렇지만 만약 남편이 정 애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변해서 나의 입장에 반대하게 되면 그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부부는 둘 다 목표가 있어서 아이가 없어도 전혀 공허하지 않다.

사례 (다)

난 애를 거부하는 편이 아니라서 “키워 놓은 아이”를 보면 부러워 보인다. 그러나 애는 낳은 게 문제가 아니라 키워야 하는데, 육아에 대한 자신이 없다. 주변의 여자 선배들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많이 봐왔고, 또 여성문제를 공부하면서 육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란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많이 느껴왔다. (남편과는) 도저히 “공동양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남편은 일하고 싶어서 휴일에도 회사에 간다. 남편의 생활태도로 볼 때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것도 제대로 안하는 데 아이를 키우겠는가. 그렇다고 나 혼자서는 못한다.

이상의 사례들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여성들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마치 자신의 삶의 성장을 위한 이기심의 발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것처럼, 이들이 아이 낳지 않기를 결정하기 까지는 아이를 낳으면 잘 키워야한다는 책임감과 잘 키울 수 없겠다는 현실적 갈등 사이의 선택이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 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되기를 포기하게 하는 건 둘 다 잘 할 수 없게 하는 현실이었다. 왜 어머니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비난받는 것이 왜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못하냐고 비난 받는 것보다 현명하다.

출산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면 개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것은 곧 저출산에 대해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부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2) 미출산



미출산 사례대상과의 인터뷰는 2005년 7월 21일(서울, 36세), 11월 11일(제주, 40), 11월 17일(제주, 40), 11월 29일(서귀포, 43)에 이루어졌으며,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였다.

사례 (라) - 유치원 교사 (2005년 7월 21일, 서울, 36세)

결혼은 어려서부터 안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 아직 사람을 못 만난 거죠. ... 그래요, 사람이야 굳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 사랑을 못해봤다는 거죠. 사랑할 만한 남자가 없더라구요. 에이 결혼이나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는 건 아니예요. ... 유치원 선생이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애를 낳고 싶진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요. 유치원 교사라는 건 일종의 안정된, 여자로서 택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일 뿐이죠. 사실 별로 애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 물론 소개해준다는 사람 등쌀에 선을 본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만나보면 만나는 남자들마다 관심이라는 게 영 아니더라구요. ... 만나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은 아니라고 해도 사랑할 수 있겠다 싶은 뭐 그런게 있어야하는데, 그저 결혼하면 직장은 계속 다닐 거냐는 등, 자기는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 잘 키울 것 같아서 믿음이 간다는 등, 늘 유아교육을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다는 등, 이걸 순전히 결혼이 무슨 장사도 아니고 ...

사례 (마) - 호텔 직원 (2005년 11월 11일, 제주, 40)

누구 남자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 결혼, 그거 안하고 싶은 사람도 이시카? 나도 결혼 하고 싶어. ...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 만나던 남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 그런데, 결혼이란게 그게 나에게서 해당이 안되는 거였는지, 결혼까지 가게 되질 않더라고. ... 애기? 낳고 싶지. 아니 키우고는 싶어. 낳지는 못하더라도. 솔직히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 가족에 대한 느낌은 ... 나 같은 경우엔, 가족이란 게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사실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쳐 놓고 생각하면, 가족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 차라리 가족이라는 게 없이 그냥 살면 안되나 싶은 생각도 들 때가 ... 내가 결혼하면? ... 내가 결혼하면 물론 그것도 가족은 가족이겠지. 근데 좀 달랐으면 좋겠어. 서로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가족이었으면 ...

사례 (바) - 대학 강사 (2005년, 11월 17일, 제주, 40)

남들은 공부하다 보니 결혼시기를 놓쳤느냐고 묻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고 ... 그냥 ... 어찌면 자신이 없었는지도 몰라.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 아직까지는 내가 버는 거 없으면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가족 모두가 어려울 거라. 지금 내 가족 때문에 미래의 내 가족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 아무튼 가족해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엔 지금의 내 가족을 해체하지 못해

서 미래의 내 가족을 가지지 못하는 게 현재의 내 상황인 것 같아. 결혼하면 아이를 가지게 되겠지만, 아직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아이문제를 생각해본 적은 없고 ...

사례 (사) - 개인교습 (2005, 11월 29일, 서귀포, 43)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어릴 때였는데, 어려봤자 스무살이지만 그때 살았던 시간보다 그 후에 살아온 시간이 더 기니까 ...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 사귀기 시작한지 한 반년쯤 지나서 같이 자고 싶어 하더라고. 물론 나도 같이 잘 수는 있다 싶었어. 헤어져 있기가 싫었고 같이 있으면 좋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거 그러니까 ... 그래, 그냥 같이 자는 게 아니고 ... 그래서 내가 거부했는데, 그렇게 밤을 새고 나더니 또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게 되니까. 아마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 ... 대학원 공부한다고 서울 가더니 거기서 여자 만나 결혼하더라고. 그 후로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의사도 있었고, 나 좋다고 덮치던 어떤 예술가도 있었는데 ... 아무튼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면 자꾸 20년 전 생각이 나서 그런가?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그런지 혼자 사는 게 좋더라고. 옆에 누가 있다 싶으면 잠을 못자니까. 여자든 남자든 누가 옆에서 같이 잔다 싶으면, 편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서 결혼안한거야. ... 애기? 그래, 애기는 낳고 싶더라. 내 애기를. 근데 어떻게 낳을 수 있겠니? 결혼도 안한 여자가 애 낳고 키울 수는 없잖아.

이상의 사례는 모두 적극적으로 결혼을 기피한 경우라기보다는 결혼을 주저하다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혼인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출산이 연기된 사례들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들의 선택은 좀 더 개인주의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혼자 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영구적으로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의지적인 독신은 아니었다. 조금씩 기존의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역할에 대한 부담이나 결혼이 사랑이 아닌 어떠한 조건에 기반한다는

데 대한 반감(좋은 어머니나 아내로서의 기대)이 결혼을 주저하게 했음을 볼 수 있다. 사례(라)와 (사)의 경우는 결혼을 사랑의 실현으로 보고 있는 경우이다. 사례(라)는 결혼에 있어서 자신이 도구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혼인을 지연시켜온 이유로 보이고, 사례(사)는 사랑의 실현으로 결혼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혼에 상관없이 출산이나 양육의 요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낙인을 염려하여 미출산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례(마)와 (바)의 경우 현재 가족에 대한 책임부담이 본인의 결혼을 통해 새 가족을 꾸리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례(마)의 경우는 사례(사)와 마찬가지로 혼인과 상관없이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욕구를 여전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꾸릴 가족은 좀 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현재 혼인이나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사랑의 실현으로서의 가족이라든가 혼인과 상관없는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욕구들이 그것이다. 즉 여성들의 혼인지연은 대체로 현재의 가부장제적 가족에의 편입을 주저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부장제적 가족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한편으로 자신의 미래가족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자본주의 발전이 가부장제적 가족의 위기를 낳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저출산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저출산은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인식됨으로써 저출산이 가족을 해체시키며,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결혼기피가 문제이고 그로 인해 여성의 문제로 개인화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결혼기피 -> 저출산 -> 가족 위기로 인식되는 측면들은 동일한 원인에서 기인하는 대등한 문제로 재인식할 것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원인’이 아닌 ‘결과’로서 이러한 현상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주로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족의 위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근대 가족이 원래 기대했던 대로 기능하지 않는데 대한, 즉 여성이 취업하기 시작함에 따라 여자가 재생산노동을 담당하려 하지 않는 데 대한 공격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해체의 문제로 사회문제화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사회에서 IMF라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면서 더욱 쟁점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가 여성들에게 있어 더욱 불리하고 억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것들이 여성들의 문제로 워혀지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근대가족에서 여성은 가부장제의 억압과 자본주의의 억압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어떻게 타협하면서 여성을 지배하여왔는가를 살펴보았다.

근대에 와서 자본주의는 가부장제와 공고히 결합하면서 여성노동을 활용해

왔다. 초기에 저임금의 유순한 노동력에서 전업주부로, 그리고 다시 주부노동자로, 이처럼 자본의 필요에 따라 여성노동은 배제되거나 이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여성노동의 활용은 가족 내 성별분업과 가부장제적 관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여성의 부분 재생산자, 부분 생산자라는 위치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결혼기피, 출산기피, 가족의 위기라는 문제는 그러한 여성들의 회답이었다.

한편, 이러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상호관련 속에서 가족은 변화하여왔고, 그것은 가족의 위기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족해체’의 언술이 등장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가족은 ‘해체’된 것이 아니라 ‘재편’된 것이었다. 그러면 ‘해체’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가부장적 가족’이다. 가부장적 가족이 해체의 변화를 겪고 있다. 부계혈연의식은 약화되고 있으며, 근대적 성별분업구조도 변화되고 있다. 가계 계승에 일차적 중요성을 두어왔던 가부장적 가족은 출산율 약화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고용불안으로 인해 생계부양자 남성의 지위도 도전받고 있다. 따라서 일련의 변화들은 가부장적 가족이 적응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가부장적 가족이 존속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출산은 가족구성자체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미혼들의 결혼 지연이나 기피로 인한 요인이 기혼의 출산감소보다 이에 더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적 위기라는 구조적 원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인의 기피는 그 매개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성노동력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노동시장 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정은 여전히 정서적 지원과 양육, 부양 등 돌봄 노동의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며 가족을 이루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기혼들에게 있어서 저출산을 강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는 최근의 가족의 변화를 맑시스트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강제적 해체론으로 보면서, 동시에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선택적 다양화론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강제적 해체론이 유의미한 것은 가족의 위기를 재개념화 하는데 있어서이다. 현재 가족의 위기는 가부장적 가족의 약화 내지는 해체됨을 위기화하면서 가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맑시스트 페미니즘은 가족 위기의 원인을 세계적 자본의 논리 속에서 설명함으로써 가족의 위기는 자본의 위기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 전체를 재조직해야만 가족은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현재의 가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원인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러한 가족의 변화들에 수반되는 문제들에 사회적 역할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맑시스트 페미니즘의 비판처럼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증가는 현상적으로 서구의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이면의 원인은 다르며 따라서 서구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포스트모던한 문화적 실천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개인의 문제들에 있어서 각 개인의 실천들을 수동적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 여성들은 가족과 자본의 이중 억압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선택한 것이다. 출산 거부는 가족과 시장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여성들의 요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적응 전략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족개념으로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중요하다고 본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구조는 가부장적 가족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동시에 여성들에게 있어 가부장적 가족의 편입은 주저스러울 정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여성들이 가족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었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혼인과 출산 기피라는 현재의 상황은 혼인이나 출산을 기피하게 한 구조적 요인들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그것은 ‘변화’에 대한 여성

들의 요구이며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근대적 사회의 변동은 가부장적 가족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확산은 여성을 어느 때보다 곤궁하게 하고 있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에 이르렀고, 가족은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부장제적 자본주의의 위기의 표출이며, 동시에 가부장적 가족과 젠더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 논문 >

- 김경애. “흔들리는 모성, 지속되는 모성역할: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여성가장.” 『한국여성학』 제15권 2호. 한국여성학회, 1999.
-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한국모자보건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모자보건학회. 2003.
- 김은실.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제12집 2호. 한국여성학회, 1996.
- 김정희. “출산율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김정희. “맞벌이 가족을 위한 육아 지원 현황과 대안 모색.” 한국여성학회. 『지구적 자본주의와 한국여성학의 지평확대』. 제21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 김혜경. “자녀관의 변화: 무자녀 가족의 경우.”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2001.
- 김홍숙. “지역사회의 특성과 출산력수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82.
- 문소정.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화.”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1995.
- _____. “1990년대 이후 한국가족연구의 동향-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쟁점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13권 제1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03.
- 박민자. “사회학에서의 가족연구.” 『가족학논집』 제5집. 한국가족학회, 1993.
- 서수경.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1호, 한국가족관계학회, 2002.

- 신은숙. “제도적 모성에 대한 갈등과 협상으로서의 저출산.” 미간행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 원정원.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2004.
- 이동원 · 함인희. “한국 가족사회학 연구 50년의 성과와 반성.” 『가족과 문화』 창간호. 한국가족학회, 1996.
- 이미경.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축적과 가부장제: 미스와 미터의 분석을 중심으로.”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공감, 1998.
- 이영자.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 『현상과 인식』 제23권 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99.
- _____. “한국여성과 지구화의 정치경제학.” 한국여성학회. 『지구화 시대의 한국 여성주의』. 제21차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5.
- 이재경. “가부장적 권위 이후의 한국 가족-젠더 정치의 각축장.” 한국여성학회. 『지구화 시대의 한국 여성주의』. 제21차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5.
- 이현송. “여성의 개인주의 확대와 가족변화-미국사회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5집 3호. 한국가족학회, 2003.
- 이효재. “21세기 가족의 전망.” 『조선조사회와 가족: 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한울, 2003.
- 전광희.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 정혜영. “노동시장 유연화와 여성노동-김해지역 유통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동아대정책대학원, 2001.
- 정형옥.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성별 차이.” 『여성연구』 통권 제67호, 한국여성개발원, 2004.
- 조순경. “민주적 시장경제와 유교적 가부장제.” 『경제와 사회』 제38권. 한국

- 산업사학회, 1998.
- 조순경. “경제위기와 고용평등의 조건.”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 조은. “가족사회학의 새로운 연구동향과 이론적 쟁점.” 『한국사회학』 제20권 1호. 한국사회학회, 1986.
- _____. “가부장제와 경제: 가부장제의 자본주의적 변용과 한국의 여성노동.”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회, 1986.
- _____. “세계화 시대 한국 가부장제-모성, 부계혈통주의, 글로벌 자본의 경합.” 한국여성학회. 『지구화 시대의 한국 여성주의』. 제21차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5.
- 조형.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가족.” 『가족학논집』 제3집. 한국가족학회, 1991.
- 최운선. “가부장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조선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녹우 연구논집』 제31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사회생활과, 1989.
- 한국여성개발원.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2004 연구보고서, 2004.
- 한남제. “가족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한국사회학』 제18집 여름호. 한국사회학회, 1984.
- 함인희. “사회변화오 가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1995.
- _____. “한국 가족의 위기: 해체인가, 재구조화인가.” 『가족과 문화』 제14집 3호. 한국가족학회, 2002.

< 단행본 >

- 김승권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권현경.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공감이론신서, 2002.
- 엘리 자레스키. 김정희 역.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한마당, 1983.
- 우에노 치즈코. 이승희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 이동원 외 옮김. 『변화하는 가족: 새로운 가족유대와 불균형』. 이화여대출판부, 1999.
- 이미경.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들』. 공감이론신서, 1999.
-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99.
- F. 엥겔스. 김대웅 역.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1989.
- 한남제 외. 『한국가족관계의 문제』. 다산출판사, 1994.

< 외국문헌 >

- Delphy, Christine. *Close to Home: A Materialist Analysis of Women's Oppression*, trans. by Diana Leonard,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4.
- Mies, Maria. *Patriarchy and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Women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Zed Books. 1986.
- _____ et al. *Women: The Last Colony*, Zed Books. 1988.
- Nash, June. "Cultural Parameters of Sexism and Racism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in Smith et al., eds., *Racism, Sexism, and the World-Economy*, Greenwood. 1998.
- Stacey, Judith. *Brave New Families*. Basic Books. 1991.
- Young, Iris. "Mothers, Citizenship and Independence: A Critique of Pure Family Values." *Ethics* 105, No.3. 1995.